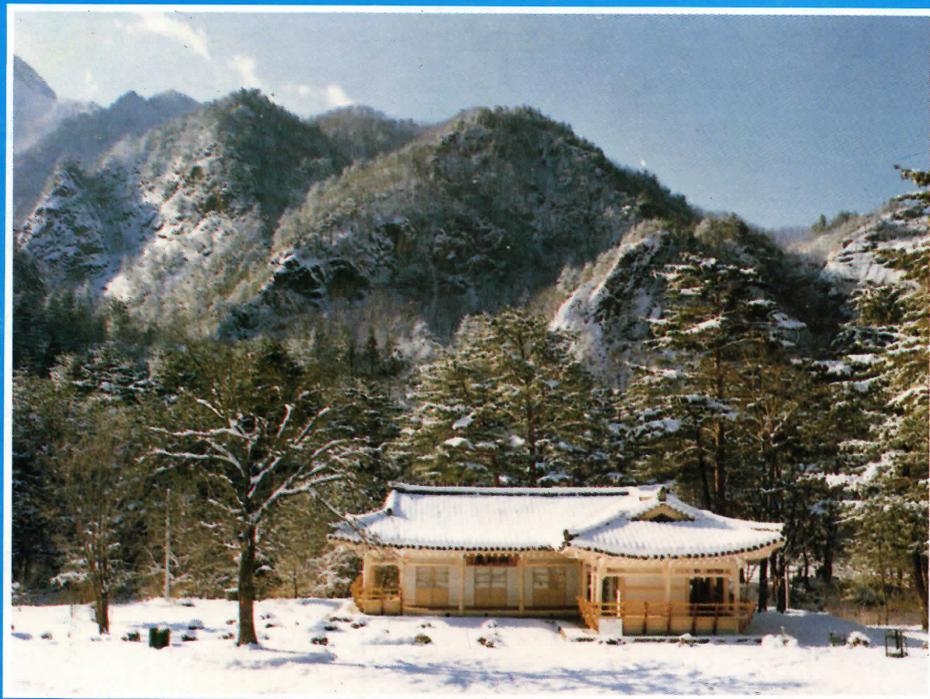


# 麟蹄文化

'88/第三輯



社團 麟蹄文化院  
法人

# 麟蹄文化

'88/第三輯

麟蹄文化  
廿帛之功

戊辰新春  
海竹  
洪性祥  
二

雪嶽絕景觀光第一

사단법인  
인제문화원

# 인 제 군 가

$\text{♩} = 100$  (정중하고 힘차게) 작사 전 현 권  
작곡 박 재 훈

*mf*

금강산 정기반은 설악의 울림 안고  
합창조 강상 의 대지 기승나 폭오 던 자 란 들 밭 고

소양강 강쪽 맑은 불이 풍서 급이 치는 곳  
봄철 난 파 가 시 면 에 단 서 천 하 의 절 경  
리

*mp*

기룡산 옛고을에 다저은역사  
산수잡 고도 너 름나 답다 든 내 고 향  
아

*f*

대대로 물려 받 은 충 효 의 고 장  
불수록 흥꽃 겨워 위 라 자 호 연 의 보 보 동 산  
담 풀 려 피 우 세 번 영 의 동

*mf*

(후렴)  
우 리 는 인 제 군 민 새 시 대 일 께

내 일 의 낙 원 을 꾸 며 나 가 세

制定日: 1980. 3. 1 (3.1節 61週年을 맞이하여)  
作 詞: 前麟蹄綜高校 校監이며 藏書家인 北靑出身 全鉉權 (1927~)  
作 曲: 春川教育大學教授이며 作曲家인 通川出身 朴在薰 (1924~)

# 郡 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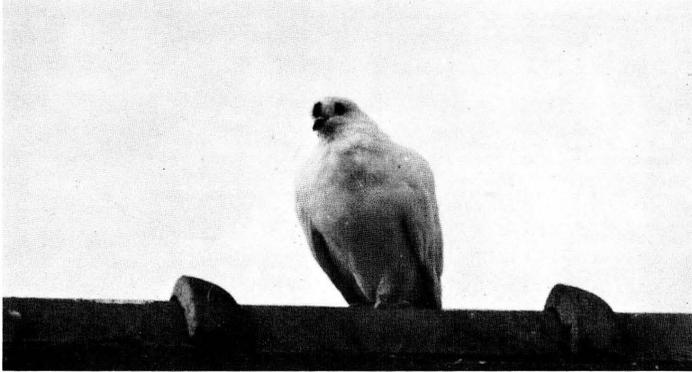


(철 쪽 꽃)

## 郡 花 解 說

—— 철쪽과의 관목인 낙엽 활엽수로서 ——

- 삼목이나 실생으로 번식력이 강함은 군민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의 저력을 상징함.
- 4 ~ 6 월에 일시에 개화하는것은 군민의 협동, 단결로 전진하는 활력을 상징함.
- 꽃색의 분홍임은 군민의 우아하고 따뜻한 인정과 순박성을 상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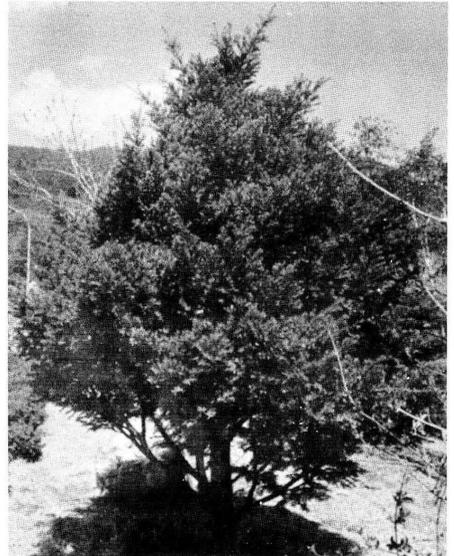


### 郡鳥：백비둘기

- 비둘기과에 속하는 새로서 성질이 온순하고 지혜로움은 온순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군민성을 상징하며
- 떼를 지어살며 협동심이 강함은 협동단결하며 상부상조하는 군민성을 상징하며
- 빛이 흰 백색입은 군민의 순결, 순진성과 백의민족을 상징하며
- 사람과 잘 어울림은 따뜻한 인정과 화목한 군민성을 상징하며
- 통신용 및 관상용의 중요역할은 남을 위해 일하며 투철한 반공군민성을 상징함.

### 郡木：주 목

- 내설악 깊은 산속에 자생하는 주목과에 속하는 상록 침엽 교목으로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욕심없는 순박한 군민성을 상징하며
- 항상 푸르른 진록색은 청렴하고 끈기가 있으며 변함없는 군민성을 상징하며
- 잎의 장타원형은 모나지 않는 원만성과 둥글게 살아가는 화목한 군민성을 상징하며
- 가을에 홍색종자의 결실은 쉬지 않고 일하므로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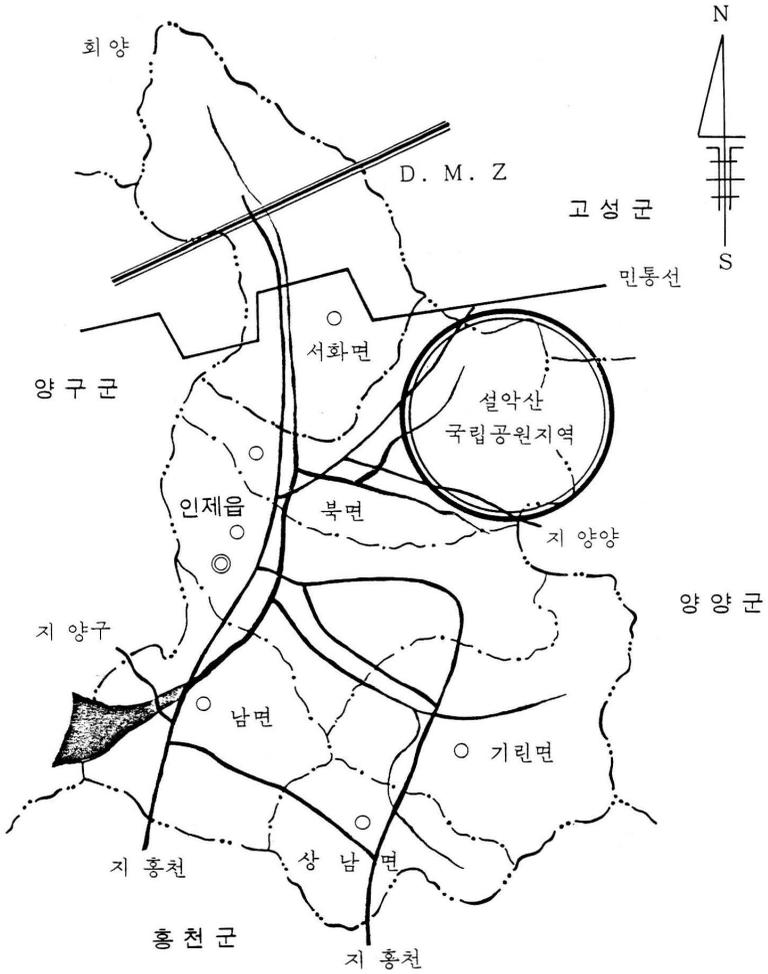


## 麟蹄郡民憲章

悠久히 흐르는 昭陽江의 源流와 世界의 名山 雪岳이  
울안에 자리잡은 麟蹄郡은 우리의 永遠한 보금자리이며,  
先祖들이 지켜온 淳朴한 人情과 美風良俗을 이어 받아  
眞實된 삶을 營爲하여 뜻과 기를 모아 이 고장을 더욱  
알뜰히 가꾸고 다듬어 子孫萬代에 길이 傳하고자 이 憲  
章을 마련하여 가슴에 새긴다.

- 우리 郡民은  
郷土防衛와 地域發展을 爲하여 하나로 뭉친다.
- 우리 郡民은  
法과 秩序를 잘 지키는 文化人이 된다.
- 우리 郡民은  
自然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精誠으로 保存한다.
- 우리 郡民은  
웃어른을 恭敬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善導한다.

# 관 내 도



읍	면	출장소	리		자연부락	새마을반
			법 정	행 정		
1	5	1	41	84	286	424

# 1. 沿革

- ◎ 麟蹄郡은 太古 貊國의 땅으로 高句麗 때에는 猪足県(麟足) 또는 鳥斯回라고 불리었으며 當時의 所在地는 瑞興里에 두었다.
- ◎ 新羅 眞興王때에 江原道 地域이 新羅의 領土에 屬하게 된 후 新羅 善德王 6年(637)에 軍事上의 要地로 牛首州(春川)에 軍主(軍政長官)를 두어 다스렸는데 이때 本郡은 牛首州 管轄 楊麓郡(지금의 楊口)의 屬縣으로 猪蹄縣이라 改稱하였다.
- ◎ 高麗때 지금의 麟蹄로 改稱하고 처음에는 春州(春川)에 屬하였다가 後에 淮陽에 屬했으며 恭讓王 元年(1389)縣으로 昇格, 監務를 두었다.
- ◎ 李朝太宗 13年 縣의 所在를 麟蹄面으로 옮기고 高宗 32年(1895) 春川留守郡이 春川府로 昇格하면서 同 5月에 勅令 第 98 號로 春川府에 예속한 麟蹄縣으로 됨.
- ◎ 1896年 勅令 第 35 號로 府가 폐지되고 江原道로 되면서 麟蹄郡으로 됨
- ◎ 1945年 8月 15日 解放과 同時에 38線을 境界로 兩斷 되면서 麟蹄面 一部와 麒麟面 一部 北面 瑞和面이 共産治下에 들어가고 南面, 內面 麒麟面 一部가 洪川郡에 編入
- ◎ 1954年 2月 20日 農民收復令으로 住民이 入住하자 美 8軍으로부터 軍政實施
- ◎ 1954年 10月 21日 法律 第 350 號 收復地域 臨時措置法 施行에 따라 同年 11月 17日 行政權 移讓으로 內面은 洪川郡으로, 楊口郡 亥安面을 麟蹄郡으로 洪川郡에 編入되었던 新南面을 麟蹄郡 南面으로 還元, 過去의 行政區域으로 復舊
- ◎ 1963年 1月 1日 法律 第 1178 號로 亥安面을 瑞和面に 統合하여 五面을 管轄
- ◎ 1973年 7月 1日 大統領令 第 654 號에 의거 行政區域을 개편 瑞和面 亥安을 楊口郡 東面으로 麟蹄郡 南面 두무리를 楊口郡 南面으로, 楊口郡 南面 上. 下水內里를 麟蹄郡 南面으로, 洪川郡 內面 美山里를 麒麟面으로, 春城郡 北山面 水山里를 麟蹄郡 南面으로 編入시켰으며
- ◎ 1979年 5月 1日 大統領令 第 9409 號 麟蹄面이 邑으로 昇格, 1邑 4面 2出張所 41里(行政里 84)를 管轄
- ◎ 1983年 1月 10日 大統領令 第 11027 號에 의거 麒麟面 上南 出張所를 上南面으로 昇格, 麒麟面 上南 1,2,3里 下南 1,2,3里 美山 1,2里와 南面 金富 1,2里를 編入시켜 現在 1邑 5面 1出張所 41里(行政里 84)를 管轄하고 있음.

(연혁 요약)

郡廳位置：麟蹄郡 麟蹄邑 上東里 349-6

年 代	沿 革
637.	○ 牛首州 관할
1389.	○ 麟蹄縣으로 昇格
1896. 8. 4	○ 麟蹄郡으로 昇格
1945. 8. 15	○ 解放과 同時에 麟蹄面 一部, 麒麟面 一部, 北面, 瑞和面이 共產治下에 들어 가고 南面, 內面, 麟蹄面 一部가 洪川郡에 編入
1954. 2. 20	○ 美軍政 實施
1954. 10. 21	○ 法律 第350 號로 內面은 洪川郡, 楊口郡, 亥安面을 麟蹄郡, 洪川郡 新南面을 麟蹄郡으로 還元
1963. 1. 1	○ 法律 第 1178 號로 亥安面을 瑞和面에 統合
1973. 7. 1	○ 大統領令 第 654 號로 瑞和面 亥安을 楊口郡 東面으로, 麟蹄郡 南面 두무리를 楊口郡 南面으로, 楊口郡 南面 上, 下水內里를 麟蹄郡 南面으로, 洪川郡 內面 美山里를 麒麟面으로 春城郡 北山面 水山里를 麟蹄郡 南面으로 編入
1979. 5. 1	○ 大統領令 第 9409 號로 麟蹄面이 邑으로 昇格
1983. 2. 15	○ 大統領令 第 11027 號로 麒麟面 上南出張所가 上南面으로 昇格

# 脈

天下의 財物을 다 준다 하여도 나의 몸과는 바꿀수 없을 것이다.

내몸은 바로 나의 **조상** 이 주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조상!

이제 우리에게 東方禮儀  
之國의 후예로서의 긍지를  
갖고 先祖의 위업과 조상의  
시봉에 그 책임과 의무가  
남아 있을 뿐이다.

孝於親 子亦孝之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내자식이 또한 나에게 효도한다.

身既不孝 子何孝焉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하리오.

언젠가는 한줌의 흙이 될 우리 人間!

조상은 바로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시었다.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眞情한

孝心이 더욱 절실한 當面課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일의 後孫들에게 人間으로서의 삶에 敎訓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며 올바른 人間 삶을 깨우쳐 줄 것입니까?

學文을 닦기 이전에 한 人間으로서의 生活態度를 먼저 깨우쳐

주어야 될 것입니다.

# 문화사업화보



◁ 일시 : 88. 1. 10  
 장소 : 인제문화원 사무실  
 참석자 : 이사 8명

▷ 일시 : 88. 1. 23  
 장소 : 인제문화관 (소회의실)  
 참석자 : 문화원회원 35명



◁ 일시 : 88. 2. 5  
 장소 : 인제문화관  
 참석자 : 80명



▷ 일시 : 88. 6. 17  
 장소 : 인제문화관  
 참석자 : 200명



# 문화사업화보



◁ 일시 : 88. 6. 21  
 장소 : 인제문화관  
 참석인원 : 150명

▷ 일시 : 88. 5. 8  
 장소 : 인제읍노인회관  
 참석자 : 120명



◁ 일시 : 88. 5. 10 ~ 6. 1  
 장소 : 인제남, 현리, 천도리노인회



▷ 일시 : 88. 8. 6 ~ 8. 12  
 장소 : 인제문화관  
 참석자 : 25명



# 문 화 사 업 화 보



◁ 일시 : 88. 8. 12  
 장소 : 인제문화관  
 참석자 : 150명

▷ 일시 : 88. 9. 11  
 장소 : 인제 부평리 선착장  
 (성화봉송맞이축제 행사)



◁ 일시 : 88. 10. 17~10. 19  
 장소 : 영월공설운동장  
 종목 : 인제 무쇠점골 보습만들기  
 (종합우수상 수여)

▷ 일시 : 88. 11. 18~11. 19  
 장소 : 도내 일원  
 참석자 : 45명



◇ 發刊辭 / 高明國(인제문화원장).....	18
◇ 祝刊辭 / 李敦燮(인제군수).....	19
鄭周鎬(인제경찰서장).....	20
梁斗錫(인제군교육장).....	21

鄉土史

麻衣太子의 영혼이 깃든 金富塔.....이 태 두 / 22

우리 맛 다식(전통음식).....편 집 실 / 24

조상들이 쓰던 것..... / 25

麟蹄는 新羅의 抗麗據点地.....최 병 현 / 28

麟蹄 民謠.....편 집 실 / 31

時評

가슴앓아.....오 정 진 / 32

향토유적탐방

..... / 35

歲時風俗

秋夕名節.....李 明 喆 / 37

端 午 祭.....김 진 옥 / 38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을 되찾으면서.....이 만 철 / 40

향토예술산책

默示속의 無化.....한 구 현 / 45

향토문화 계발 촉진.....이 상 각 / 47

솜다리 합창단..... / 49  
향토극단 온솔파..... / 50  
내설악 사진동우회..... / 51  
내린문학동인회..... / 53  
아미화실..... / 54

향토문예

詩

을지전망대에서..... 최 양 대 / 56  
우리 모두 이제는..... 최 병 현 / 57  
기 도..... 오 정 진 / 58  
합강리에서..... 차 재 연 / 59

'88경로효친사상 선양 글짓기 입상작

하늘아래 단 한분..... 원 인 선 / 61  
외로운 가슴에 사랑의 꽃을..... 용 은 주 / 62  
할아버지의 주름살..... 박 수 연 / 64

\* '88인제문화원 사업일지..... / 65  
'89인제문화원 사업계획..... / 66  
인제문화원 임원..... / 67  
편집후기..... / 68

## 發 刊 辭



高 明 國  
(인제문화원장)

## 地方文化 展開속에 文化院의 중추役割

麟蹄 文化院이 그 동안 年刊으로 發行해 온 文化誌 「麟蹄文化」가 第三輯을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1986年 創刊되어 그 동안 郷土 文化誌로서 寄與와 役割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發行 部數나 內容面에서 본격적인 文化誌라고 부르기에 좀 不足하고 不充分한 점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勿論, 麟蹄 文化院은 84年度에 設立되어 沿革도 짧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事業을 修行해 나가다 보니 文化院의 機能에 對한 役割을 다 못하고, 그 속에 本誌도 不充分한 內容으로 編刊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곧 실시될 地方 自治制와 더불어 열리게 될 地方 文化 時代에 발맞추어, 계속 郷土 文化의 球心體가 되고, 地方 文化 센터로서 特性에 맞는 文化 需要 充足과 愛郷 精神 고취에 기여하는 文

化 團體로 발전하여 갈 것이라고 本人은 期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本誌도 地域 文化의 郷土誌로서, 地域間의 文化 교류와 홍보 기록 보존에 알찬 主導權의 제 구실을 다 할 것이며, 또한 文化 活動과 事業은 전개될 것입니다.

앞으로 本誌가 해가 더해 갈수록 알차고 풍성한 郷土誌가 되도록 本人은 勿論, 地域 住民이 모두 同參하여 주심과 協力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祝 刊 辭



李 敦 燮  
(인 제 군 수)

## 郡民의 自律的인 참여로 郷土文化를 꽃피우자

“麟蹄文化”誌가 벌써 誌齡 3年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祝賀할 일입니다.

지난 해에 본인은 이 글을 쓰면서 “麟蹄文化”誌의 發展과 胎動을 계기로 많은 自生 文化團體가 탄생되기를 祈願했는데 “麟蹄文化” 二輯을 받아보고 編輯面에서나 內容面에서 몰라보리만큼 成熟한 것을 보고 놀랐으며, 또한 “온술외” 극단, “숨다리” 합창단, 사진동우회, “地域問題研究所”, “麟蹄郷土研究所”, “甲屯郷土史蹟研究會” 등 많은 自生團體가 雨後竹筍으로 탄생하였고, 아미화실, 서예교실 같은 施設이 갖추어져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文化活動의 不毛地로만 알려져 왔던 이 고장이 文化誌 탄생 3周年을 맞이하며 이렇듯 놀랄만큼 成熟한 모습을 볼 때 이곳 인제는 필연코 가까운 장래에 藝術의 고장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이러한 一聯의 文化藝術 활동을 중심으로 군민이

和合하고 또 愛郷心이 고취될 때 地域發展에 기여함이 크리라고 보며 地方化時代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본인은 금년 제 6회 江原道民俗藝術 競演大會에서 우리 군에서 출전한 “보습만들기”가 종합우수상을 수상하여 3년 연속 입상의 영광을 누리므로써 군민의 自矜心을 드높이고 무한한 底力을 충분히 과시했다고 보며, 團合된 군민의 意志와 結束力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麟蹄文化”誌가 군민의 自律的인 참여와 성원 속에 물이 흐르듯 유연하게 發展해 나가면서 地方文化 暢達 및 繼承發展의 觸媒體가 되기를 期待하면서 아울러 麟蹄文化院의 무궁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 祝 刊 辭



鄭 周 鎬  
(인제경찰서장)

옛것을 알고 오늘을 올바르게  
인식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문화지로 발전되기를...

麟蹄文化誌 第3輯을 發刊하게 된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郡民의 聲援과 參與로 잊혀져 가는 文化가 發掘되고 해가 거듭할수록 알찬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多幸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郷土文化는 일정한 지역의 郷土性이 集約된 文化와 土俗的인 生活形態, 그리고 代代孫孫 祖上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精神的 創造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文化에 대한 올바른 認識의 方法은 지역적 傳統性을 어떻게 찾아서 脈을 이어주는가의 解釋과 未來에 대한 소명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새로운 科學文明과 産業社會의 要求에 부응해서 자칫하면 잊혀 버릴 수 있는 郷土文化를 전통과 郷土愛를 바탕으로 創造되고 形成될 때 지역문화가 繼承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熱과 誠을 다 할 때

保存될 것입니다.

麟蹄文化誌 第3輯을 發刊함에 따라 문화유산의 전승을 기하고 살아 숨쉬는 未來의 發展과 和合의 促進制가 되리라 봅니다.

郷土文化가 後孫들에게 올바르게 수용되어 좋은 문화로 開發 暢達될 수 있도록 旺盛한 문화활동을 통하여 소기의 目的을 蓄積하고 先頭走者로서의 役割을 다 할 때 麟蹄文化誌는 郷土文化誌로서 길이 保存될 것 입니다.

옛것을 알고 오늘을 올바르게 認識하며 未來를 지향하는 文化誌로 發展되기를 바랍니다.

## 祝 刊 辭



梁 斗 錫  
(인제대학교육장)

## 소중한 문화유산의 계승 으로 民族文化를 더욱 알차게...

지난해에 이어 향토문화의 창달과 인제  
군민의 알차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빠짐없  
이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인제문화 3  
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 값진 일이  
라고 생각하고 인제군에 근무하는 5백여  
교육동지와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인제군은 산이 첩첩으로 쌓여있어 산세  
가 아담하고 수려하며 맑고 깨끗한 함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고,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  
는 인제군민의 마음도 여유있고 아름다와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점차 성숙한 민족문화 유산을 계승발전 시  
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이 고장을 아끼고 가  
꾸려려는 마음으로 슬기와 힘을 합쳐 문화창  
달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의  
아름다운 미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제문화는 그 연륜을 더해가고 있  
으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고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계승을 위해 정성어  
린 원고들을 정리하고 인제문화지를 계속  
발간하여 향토문화의 꽃을 활짝 피워 주  
시기 바랍니다.

# 麻衣太子의 영혼이 짓든 金富塔

갑둔국민학교 교사 이 태 두

김부탑은 고려 정종 2년(서기 1036년)에 세워진 5층 사리석탑이었으나, 그 후 원인 모르게 의도적으로 파손되어 흩어지고 매몰된 채 방치되어 왔다. 필자가 이를 발견했을 때에는 3개의 옥석이 완전 두 동강나 있었고, 면석도 심한 풍화를 입은 상태였던 것을 발굴하고, 멸실 부분을 조각하여 복원 하였으며(1987.10.21) ‘김부탑’이라 명명하였다.

오늘날에도 산간 오지로 교통이 매우 불편한 옛 김부리였던 갑둔리 협소한 골짜기에 탑을 세웠던 연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에 분명한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만으로 세운 탑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가정은 면석에 희미하게 남아 있는 銘文을 판독한 결과이다. 해서체로 음각된 4행 34자의 명문은

菩提戒弟子仇上主  
金富壽命長存家  
五層石塔成永充供  
養太平十六年丙子八月日이다.

위에서 ‘弟子’는 ‘弟子’의 이 두문자이고 ‘菩’자와 ‘壽’자는 ‘薩’자와 ‘壽’자의 고어이다. ‘太平十六年’은 서기 1036년으로 이 연호는 글안 성종때의 연호로써 10년동안만 사용되었고, 태평 16년은 흥종 7년으로 ‘중희’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명문(銘文)을 해석해 보면 “불심이 깊은 仇라는 사람이 상주(왕)인 金富의 영

혼으로 하여금 오래도록 머무를 집(탑)으로 5층 탑을 지어 영원토록 지극한 공양을 하려 하노라.” 라는 뜻이다.

이 내용에서 추리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6년이 지난 연호를 사용한 것은 당시 이곳의 문화권이 외계와 격리되었고 이는 곧 은둔 집단이 거주했었다는 증거이며

둘째, ‘상주김부’는 지금까지 전설의 주인공에 불과했던 ‘김부대왕’이 실존인물이었다는 점이고

세째, 당시 기원탑 대상은 고승이나 국가에 국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세명의 ‘김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니 김부의 지위는 왕이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첫째로, 당시까지 일반 서민은 성을 갖지 않았음에도 김씨성을 가진 김부는 신라 왕손임이 틀림없다. 더구나 모든 전설에 대왕의 칭호를 받고 있으니 왕의 실체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金富’는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시호)의 본명인 ‘金傳’와 오늘날에 그 음이 같아 의아심을 갖게 하지만 당시에 ‘金富’는 ‘김보’로 발음되었던 듯하다.(김부리의 옛 지명은 김보왕등이었다.)

둘째, 고려와 적대관계에 있던 글안 연호의 사용은 고려 왕조에 항거하는 주인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세째, 김부탑의 건립 연대는 신라 패망 100주년 이기도 하지만, 마의태자의 2회

갑년(121세)인데 탐 명문의 ‘김부수명장 존’의 기원과 맥을 같이 한다.

네째, 16세기경 만들어진 신라김씨 세보에 마의태자의 본명이 ‘鎡’로 적혀 있는데 ‘鎡’은 파자로 ‘金+益’이며 이는 ‘金富’와 한자어로 의미상 같다.

다섯째, 김부리 주민들은 옛부터 세곳에 김부대왕자를 지어 ‘敬順大王一子之神位’로 씌인 위패와 철마상을 모셔놓고 동제를 지내 왔는데 이것은 경순왕의 맏아들이라는 뜻이다.

이상의 사실과 전설, 그리고 지명 유래 등을 연관 지어 볼 때 金富는 곧 경순왕의 태자이며 부왕의 항복 처사에 불만을 품고 그 추종 신하들을 이끌고 경주를 떠나 온거 최적지인 김부리에 들어 왔고, 신라 재건을 꾀하려 항려 세력을 키우다 마침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치니 그의 숭고한 구국열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탐을 세웠던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13세기에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태자가 개골산에 들어가 초막 짓고 마의초식하다 죽었다고 기록하여 ‘마의태자’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 김부탐은 이를 반증하고 그의 행적과 본명을 밝혀 주고 있으니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문화재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선질군과 바지게

— 편집실제공 —

### 1. 선질군

원통을 단말로 하여 양양, 속초 지방과 흥천, 춘천 지방간에 불재료를 이용하여 선질군으로 하여금, 원통에서 동해안으로는 곡물, 소금을 운반 하였으며, 동해안에서 어물을 교환하여 흥천, 춘천 등지로 반출할 때는 원통에서 우차(牛車)를 이용 하였 다함. 선질군은 보통 적은 것은 7명으로부터 20명 까지의 집단으로 행동 하였으며, 당시 짧은 사람들이 2~3년간씩 혹은 2인이상 종사하여 장가가는 밀친을 만드는 것이 제일 큰 소망이었다고 하며, 원통



옛날 선질군들이 사용하던 바지게

## 향 토 사

을 출발하여 한계리 자량밭 부근에서 일박하고 목적지까지 통상 1박2일을 소요하여 왕래하였다 함.

### 2. 바지계

바지계의 특성은 보통 지계와는 달리 지계 뒤에 2개의 다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계 위에다 다른 막대기(약 1m)를 끈으로 동여 매는것이 또한 보통 지계와는 다르다. 막대기 상부에는 바를 매어도 흘러 내리지 않도록 톱니 바퀴 모양으로 에웠으며, 보통 자루에 짐을 넣었을 때에는 자루 끝을 톱니처럼 생긴 막대기에다 동여매면 흘러 내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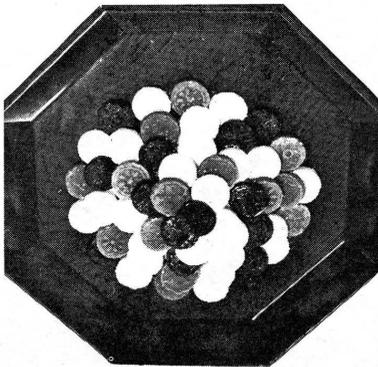
바지계를 만드는 나무는 주로 님나무

를 썼는데, 이것은 단단하고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멜빵과 등대는 역시 짚으로 엮는 것으로 보통 지계와 똑같은 것이다.

주로 옛날에 선질군들이 많이 사용하던 것을, 현재 인제 문화원 고명국 원장님이 수집하여 인제 문화원 전시실에 보관하고 있다.

### <참고>

원통리는 본래 인제군으로서, 이조시대의 驛院制度 당시 圓通驛이 있었으므로 院원통이라 하였는데, 1914년 魚頭里와 下洞 일부를 병합하여 원통리라 함. (1759년 당시 48호에 185인이 거주)



다식은 깨·콩·참쌀을 볶아서 가루로 만든다음 꿀과 물엿으로 반죽해서 다식판에 넣어 박아낸 것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삼국시대에 차일가루로 다식을 만들어 제사상에 올린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며 혼례상이나 회갑상 제사상등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다과였다. 상에 낼 때는 목기에 색깔을 잘맞추어가며 빙빙 돌아가는 형태로 쌓아 올린다.

## 우리 맛 다식(전통음식)

— 편집실 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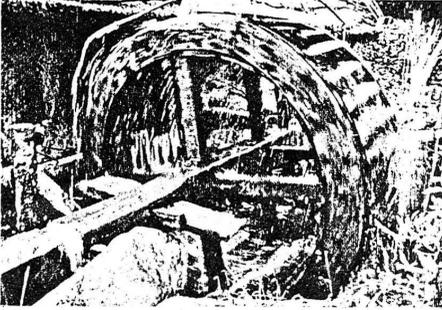
### <재료>

흑임자 1컵, 녹말 1컵, 오미자 2큰술, 송화가루 1컵, 참쌀미수가루 1컵, 물엿 2컵, 설탕 1컵, 꿀 2분의 1컵, 물 4분의 1컵

### <만드는 법>

- ① 참쌀·미숫가루·녹말·콩가루는 미리 말리거나 빵아두고 흑임자는 타지않게 볶아 가루내어 채에 친다.
- ② 진하게 우려낸 오미자물을 적당한 분량의 녹말에 조금씩 부어가며 연하게 물들인다.
- ③ 준비한 각종 가루에 중탕한 엿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각각 덩어리로 뭉친다.
- ④ 흑임자 가루는 서로 잘달라붙지 않으므로 찹통에 살짝 쥔 다음 색이 검어지고 차지면서 거친 맛이 없어진다.
- ⑤ 흑임자 가루 반죽 쥔 것은 질구에 넣고 곱게 쪼어 중탕한 엿물을 조금씩 넣어 덩어리로 뭉친 다음 다식판에 박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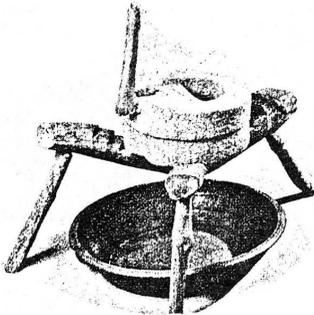
# 조상들이 쓰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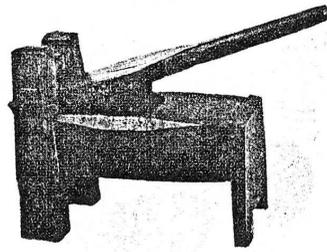
물레방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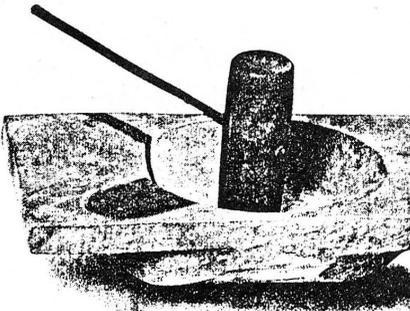
호롱불과 등 : 먼 옛날 어둠을 밝혀주던 호롱 불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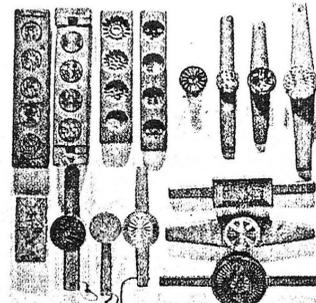
맷돌 : 주로 곡식을 갈아서 가루를 만들 때나 물에 불린 곡식 등을 갈 때 쓰임



약틀 : 약물을 짤 때 쓰이는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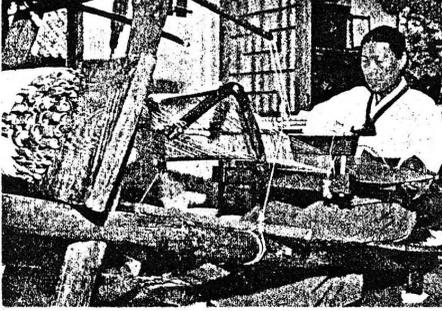


안반과 떡메 : 떡을 칠 때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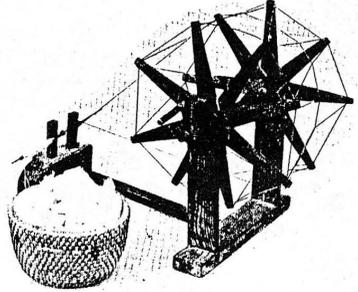


다식판 : 녹말, 송화, 송검초, 황밤, 검은깨 등의 가루를 꿀에 반죽한 것을 박아내는 판

## 조상들이 쓰던 것



베틀 : 옷감을 짜는 기구



물레 : 솜이나 털로 실을 뽑아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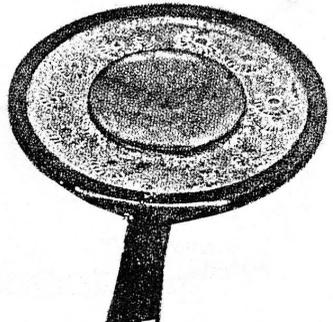
쌌 : 솜(목화)에서 씨를 가려 냄



모시 : 삼겹질에서 자아 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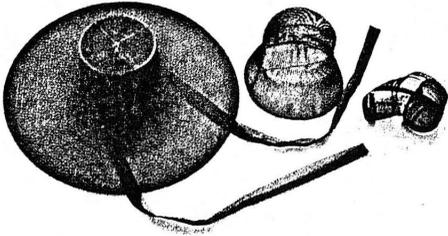


화문석 : 왕골로 만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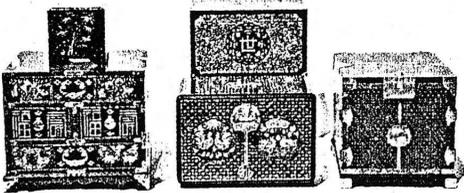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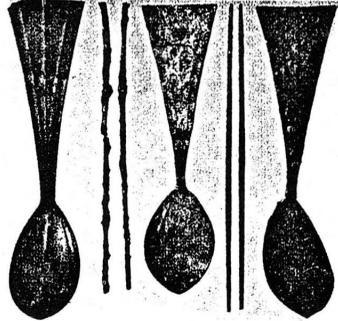


동경 : 유리거울이 나오기 전에 청동을 부어 만든 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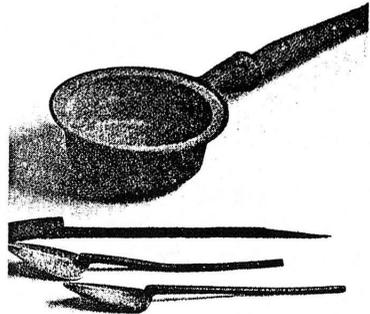
# 조상들이 쓰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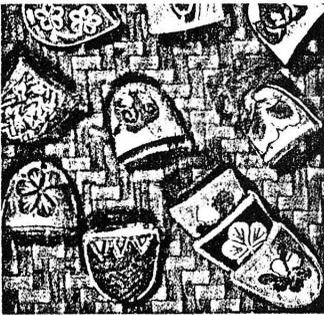
갓 : 갓은 말총, 대, 명주실, 아교, 먹, 생칠, 숯, 청동수저 : 백제시대 등을 원료로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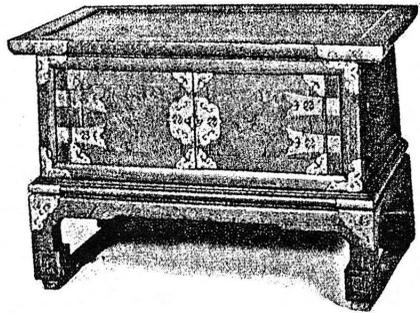
나전칠기 : 고려에중 때부터 싹트기 시작한 나전 칠기공예는 이순신장군이 13공방을 설치, 발전시켜 화려한 꽃을 피움.



청동다리미와 인두



갈무 : 바느질을 할 때 인지에 끼는것으로 형 겹, 가죽



머릿장 : 머리맡에 두고 옷이나 손쉽게 사용하는 물건을 넣어두는 장

## 麟蹄는 新羅의 抗麗據点地

인제군청 공보실장 최 병 현

麟蹄郡 官內에는 新羅의 마지막 왕인 56代 敬順王(金傅)과 그의 第1子인 麻衣太子(金富大王, 金鎰)에 얽힌 많은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敬順王이 築城했다는 寒溪山城의 전설. 金富大王으로 호칭되어 오는 麻衣太子가 머물렀다는 전설에 의하여 命名되었다는 金富里와 이와 관련한 술한 地名. “新羅敬順大王第1子之神位”라는 位牌가 모셔진 大王閣과 洞祭 등이 있다. 이에 筆者는 이고장에 전해 오는 전설과 遺物遺蹟, 그리고 各界各層에서 發表한 資料등을 綜合分析하여 麟蹄가 新羅의 마지막 抗麗據点地로 麻衣太子와 有關한 國亂克服의 遺蹟地라는 점을 몇가지 예를 들어 意見을 提示하고자 한다.

### 1. 金富大王은 麻衣太子와 同一人物

金富大王은 敬順王(金傅), 麻衣太子(金富, 金鎰), 金世震(金富)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순왕과 관련된 전설로는 金富里의 地名 由來와 寒溪山城 築城에 관한 것 뿐인데 신라 마지막 임금인 敬順王(金傅)과 麻衣太子(金富)로 혼동되고 있는 점에서 경순왕으로 와전될 가능성이 많고 기록상으로는 고려 태조 왕건이 죽은 뒤 망한 나라 망한 임금의 번뇌속에 천년 사직을 지키겠다고 背骨山으로 입산한 太子와 그 일행들의 자취를 더듬어 인제에 와 있다가 떠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이는 金富里 지명 유래와는 관련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寒溪山城을 쌓았다는 전설과는 맞지 않는다. 한계산성을 하루 이틀에 쌓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城을 쌓는데 동원될 많은 무리를 이끌고 이곳에 왔을리도 없고, 올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金世震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그가 무엇을 하던 어떤 인물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기록에도 없다. 그런데도 최근에 와서 金世震을 金富大王, 金富와 동일인으로 보는 이가 있는데 이것은 寒溪山城안에 세워진 天祭壇 銘文에 새겨진 金世震이 한계산성을 쌓은 金富大王일 것이라는 추측에서 한 말이 그렇게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천제단에 대해서는 1987년 4월 9일자 京鄕新聞에 발표된 朴成壽 교수의 檀君紀行에서 고려시대에 군사들이 새겨 놓은 글귀임에 틀림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番韓世家를 인용하여 1130년경에 세워졌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으로 보아 한계산성이 축조된 그 이후에 세워진 것이 확실하며, 김세진은 제단을 쌓고 자신의 소원을 기원하는 비문을 새겨 넣은 자로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의태자에 대해서는 이 지방에 전해오는 전설이 너무 많고 凡新羅金氏大宗院의 기록에 麻衣太子는 문성왕의 5대손 金傅(金傅)와 즉방부인 朴씨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초휘(初諱)는 富이고 이름은 鎡이라 적혀있어 그 십증을 굳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이 근세에 와서 만들어져 신빙성이 없다고 할 이도 있을 것 같아 좀더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갑둔향토사 연구회 회원인 이태두 교사의 麻衣太子의 본명 해설에 관한 글을 옮겨 적어둔다. “鎡”자를 破字로 분석하면 金益(김익)이 된다. “益”자는 “넉넉하다”, “많다”의 뜻이며 金益을 함께 해석하면 “금이 넉넉하다” 즉 부자라는 뜻이 된다. “富”자의 뜻을 보면 역시 “넉넉하다”, “많다”의 뜻으로 결국 “益”자와 “富”자는 음은 다르나 뜻은 같다. 옛 사람들은 사물현상을 말 할 때 한자의 뜻의 의미는 변화 시키지 않으면서 외형적 표현을 다르게 한 경우가 많았다. (破字의 예 : 木子=李, 四維=新羅, 三水=泰鳳) 따라서, “富”자를 “鎡”으로 표기함으로써 의미는 변화시키지 않고 표기만 다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鎡=金富)

그렇다면 왜 표기를 다르게 해야만 했을까? 마의태자의 아버지인 경순왕의 본명이 “傳”이다. 몇백 년 후의 후손들이 생각할 때 부자간의 이름이 음이 같아 호칭상 구분이 안 된다. 그러나, 언어에서 음운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 변할 수 있다. 천여 년 전에 “富”자와 “傳”의 음은 같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당시에는 부자간의 이름 호칭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몇백 년이 지난 조선조 중기에 한자의 뜻과 음을 한글로 표기하면서 두 글자의 음이 같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나주 김씨 족보(1900년 제작)에 현 김부리를 “김보왕동”이라 표기하였는데 이것은 김부의 옛 음을 빌어서 지칭한 것 같다. 따라서, “金富”와 “金鎡”은 동일인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마의태자의 이

름인 바 두 이름 중 “金富”가 본명이 된다. 왜냐하면, 갑둔리의 김부담 명문에 있는 “金富”는 太子의 나이 121세 때 기록된 것이고 “鎡”은 600여년 뒤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金富”가 본명이라는 증거로 김부담 명문에 「……上主 金富壽命長存家……」에서 “上主 金富”는 김부왕이라는 뜻이며 영원불멸할 것을 나타낸 것이고, “家”는 그 열이 깃들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니, 생존시에 망국의 한을 풀으려 노심초사 했던 주인공이라면 마의태자임을 생각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의태자의 본명은 “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되나 다른 측면에서 고증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또 김부가 마의태자의 본명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당시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성(姓)을 갖지 못했었다. 그런데도 김부는 성을 갖고 있었으니 신라 왕자로서 인제 방향으로 들어온 사람은 마의태자 뿐이라는 점과, 탐을 세워 영혼을 공양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나 이름있는 스님이 아니고는 당시 사회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개인을 위하여 탐을 세울 수 있는 대상은 왕이었을 것이며, 이는 곧 마의태자 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을 위하여 세운 탐은 전국에서 이 탐 뿐이다.

고려 태조 “왕건”과 그의 아버지 “용건” 그의 할아버지 “작제건”의 이름 끝 글자 “건”이 모두 같았던 것은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삼대가 같은 이름을 쓰면 삼한의 왕노릇을 한다”는 뜻에서 였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경순왕과 태자의 이름이 음이 같거나 비슷했다면 필시 이러한 연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태자의 향려, 신라 재건의 야심이 깃들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향 토 사

### 2. 皆骨山은 雪岳山

마의태자가 입산한 산이 皆骨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여 많은 학자들은 皆骨山을 金剛山으로 추정하여 마의태자가 금강산에서 麻衣草食하다 세상을 떠난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개골산은 금강산의 겨울산(雪山)을 상징하는 이름이지 실제 산의 이름은 아니다. 그러나 개골산(皆骨山)과 눈덮인 금강산(雪山)을 같은 산으로 본다면 皆骨山은 雪岳山の 異名이라는 주장을 억지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雪岳山은 雪山으로도 불리워 오고 있으며, 三淵 金昌翁(1653~1722)의 “永失庵”이라는 詩에서나 錦園(1804~?)女史의 “大勝瀑”이라는 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듯이 雪岳山 보다는 雪山으로 더 많이 表現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개골산이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겨울의 금강산(雪山)이라고 보기 보다는 雪山(雪岳山)의 異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 마의태자가 개골산으로 입산했다는 기록만 가지고 금강산에서 생활하다 여생을 마쳤다고 단정 할 수 없는 것이 그에 대한 행적에 관한 전설들이 인제 지방에 더 많이 전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악산이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이니 길을 떠나기 전까지는 금강산까지 가려했더라도 도중에서 마음이 변하여 인제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또 凡新羅金氏大京院의 기록을 보면 태자 일행이 서라벌을 떠난 것은 단기 3268년(935) 10월 하순이고, 지금의 한계리에 도착한 때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와 눈보라가 심한 한 겨울이라고 했다. 쌓인 눈이 발길을 막아 진퇴양난에 처한 태자는 망경대에서 한없이 울다가 서라벌을 향해 세 번 절하고(전설에는 경순왕으로 전함) 인근 산 아래 민가를 찾아들어 목계 되었

으며, 해가 바뀌어 신하들과 의논하여 현재의 김부리로 옮겼다고 했다. 이런 기록으로 보아 마의태자가 중신한 곳은 인제가 분명하며 “寒溪里”라는 지명은 태자 일행이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몹시 추웠던 것을 되새겨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 3. 寒溪山城은 麻衣太子가 築城

한계산성의 축성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이미 축성되어 있었음이 확인된 확실한 기록은 《고려사》에 보면 고종 39년(1252) 전국에 있는 주요 산성에 방호별감이라는 특수 책임을 맡은 장군들을 파견했다는 내용으로 알 수 있다. 또, 마의태자가 이곳에 들어온 것은 그의 나이 20세(935)가 되는 해의 10월 하순이고, 죽은 해는 1036년으로 그의 나이가 121세인 것으로 보아 거의 1百年이란 긴 세월을 체류했으니 능히 한계산성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 4. 金富里는 麻衣太子 終身地

金富里가 麻衣太子의 향려거점지로 확실한 것은 부락민들이 대왕각을 지어 놓고 “新羅敬順大王第一子之神位”라는 位牌를 모셔놓고 친여 년간 洞祭를 지내오고 있으며 拜禮는 왕에게만 한다는 四拜를 한다는 것이다. 洞祭는 매년 단오절과 重陽節 2회에 걸쳐 올리는데, 그 생활이 어려운 때에도 걸르지 않고 주민이 함집해서 자금을 마련하여 넉넉한 祭物을 준비했다는 것은 웬만한 지성이 없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전설로만 전해오던 이야기가 최근 발견된 김부담의 명문에 “金富壽命長存家”라는 글귀가 새겨져 전설이 아닌 사실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麟蹄가 新羅의 마지막 抗麗據點地로 麻衣太子와 有關한 國亂克服의 遺蹟地라는 점을 몇가지 例를 들었으나(紙面關係로 구체적으로 發表하지 못함이 아

쉽다.) 史料의 부재로 전설에만 의한 것인 만큼 절대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계속 研究하고 조사하여 더욱 많은 입증자료를 確保해야 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전설이 사실로 나타난 트로이 遺蹟 發掘같이 이 地域에 전해오는 전설 또한 그러하리란 생각이 든다. 전설속의 人物로만 여겨졌던 金富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음이 最近에 發掘된 金富塔의 銘文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筆者의 意見이 歷史性이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問題가 될 수는 없다.

우리 郡民은 오로지 先祖들이 外勢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모두가 한마음 되어 목숨을 걸고 싸워 지켜온 이 땅을 더 이상 방치 할 수는 없지않은가? 귓가에 들려오는 저 수많은 의병들의 함성소리를 들으며, 우리도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한마음되어 이 땅을 수호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베일을 벗기듯 사장되었던 歷史가 밝혀지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다.

麟

蹄

民

謠

## 麟蹄讚歌

- ① 白頭山이 일진하여 흘러 내려와  
江原道에 이르러 우뚝 솟았네  
一萬二千 높은 峰은 金剛山이요  
蒼村위에 솟은 곳은 五臺山이라
- ② 金剛山과 五臺山을 앞뒤에 두고  
峨嵋山은 半空中에 높이 솟았네  
起龍山脈 넓은 들에 여러 家들은  
空氣 좋고 물이 맑은 麟蹄邑이라.

## 麒麟面民歌

- ① 雪岳山 높은 精氣 芳台에 있고  
內麟川 맑은 물이 감싸 도는곳  
넓은 숲 푸른 바다 이어 번지니  
基知는 우렁차게 뻗어 나간다.  
후렴 { 키우자 드높이 세워진 꿈을  
          우리는 麟蹄人 새世代 일꾼
- ② 下馬路 麒麟臺는 자랑스럽고  
저마다 가슴마다 부푼꿈안고  
繁榮을 다짐하는 福祉의行進  
來日의 보금자리 다져나간다.



## 가슴앓이

인제문화원장 오 정 진  
부 원 장

사람들은 세상이 각박하다고 한다. 너무 싸늘하고 이기적이어서 살맛이 안 난다고 한다. 물질만능시대 돈만 있으면 치너 무엇 빼놓고는 다 살 수 있는 세상, 인정이 메마르고 도덕이 땅에 떨어져 방향각각을 잃고 향락에 젖어 허우적거리는 세상이라고 한탄들을 한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한탄하는 그 사람들, 그들의 생활은 어떤가? 과연 그들은 새로운 가치를 찾으려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가? 깊은 반성과 고뇌속에 보다 한 차원 높은 생각을 낳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가치관을 다듬어 나가고 있는 것일까?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참다운 삶의 본보기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는 것일까? 아무리 큰 강도, 그 始源을 거슬러 올라가면 샘에서 시작되듯이, 세상 돌아가는 모양은 자그마한 나로부터 비롯된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세상 돌아가는 꼴과 모양이 결정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을 한탄하기 전에 나에게 대한 성찰과 관심이 앞서야 할 것이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내 자신부터 돌아보고 반성하고 가다듬고, 보다 따뜻하고 아름답고 참되게 발돋움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자식새끼 다 스용없어. 그것을 치닥거리 끝나면 내 인생은 종착역 아닌가?” “내 인생 즐겁게 사는 날까지 살아야 해” 이즈음 오십대의 하소연이다. 듣고 보면 그럴듯하기도 하다. 나는 비록 이 모양으로 살아오지만, 자식만은 일류대학 졸업시켜 내놓으라 활개치고 살게 하려는 욕심으로 인간힘써 치닥거리 하다보면, 어느덧 처량한 황혼 인생은 다 가고마는 것이리라. 그래서, 자식들 시집 장가보내 놓으면 그들은 그들대로 경쟁의 와중에 휘말려 부모를 돌볼 생각이나 한다 더냐는 것이다. “공부 잘해라”, “꼭 대학가라”하는

생각이 부질없는 것이요. 한평생 나 편하고 즐겁게 살면 그게 가장 현명한것이 아니냐는 머리에 서릿발이 높아가는 초로들은 서로 마주보며 동의를 구하고 확인하려고 한다. 이제 부모 자식간의 사랑의 끈마저 느슨해지고 끊어져 감을 역력히 보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이라? 부부간에도 별거다, 이혼이다 해서 점점 가정의 핵심마저 무너져가는 느낌이다. 이기심은 거의 극단으로까지 가고 있음을 어찌하라? 이기적인 위치에서 시각을 어느 일부에 집중시키면 전체를 볼 수 없듯이, 치열한 경쟁에 휘말리다보면 우리 모두가 서있는 바탕 자체가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남의 약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보다 큰 명예, 보다 많은 물질의 몫 보다 많은 쾌락을 차지하기위해 허덕이는 것이 아닐까? 더불어 살아야 하고 물려받아 좀더 낮게 창조해가야 하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협동해 가며 살 수 밖에 없는 운명을, 아니 우리 모두의 삶의 바탕을 무의식중에 허물어져 버리는 어리석은 경쟁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의 나뭇잎 아닌가? 지층 깊은 곳에 역사의 뿌리를 박고 인류라는 공동체의 줄기에 국가라는 가지, 그 가지에 수없이 매달려 팔랑이는 이 “나”여야 하지 않을까? 세계는 하나이며 지구촌이다. 전 인류가 협동을 통해 보다 향상 발전해 가야 된 운명에 놓여 있음을 직시하자. 욕심의 포로가 된 나를 해방시키자.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소질을 최대한으로 개발해서 서로 협동하자. 남의 약점을 이용해 저마다의 욕심을 채우려는 경쟁에서 벗어나, 서로의 장점을, 협동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우리 모두가 향상 개발되도록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세상이 각박하다, 메마르다, 싸늘하다 등등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나름대로 가슴앓이를 해보는 것이다.



## 朴寅煥詩碑

○건립장소 : 아미산 인제군 군립공원

○준공일 : 1988. 10. 29

○시공자 : 삼원산업 대표 박 주 화

○건립자 : 박인환시비건립추진위원회

취

지

문

박인환 /

그는 인제가 낳은 시인이다.

불운한 시대에 태어나 31세라는 젊은 나이로 요절(夭折)했지만,  
그가 남긴 수십 편의 시는 이 나라 모든이의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고  
한국문학사에 큰 획을 그어 놓았다.

그의 대표작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애정을 갖게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

이제 그는 모든 인제군의 자랑이며 긍지를 갖게 한다.

따라서, 5만 군민은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활짝 꽃피우지  
못한 시혼을 달래고 영원히 그와 함께 하기 위하여 작은 정성을 모아  
시비를 세우는 바이다.

### 박인환시비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 김진용

○추진위원 : 박해순 방효정 이명철 이승호 정재학 전상규 황범식 박주화  
김웅식 심영지 김진용 이규해 차종진 변완기 정병석 박성종  
정인식 심상우 장석만 엄규완

송시

## 장미의 별

조 병 화

천재는 요절하는 것인가.  
너무나 빨리, 그리고  
먼저 떠난 그대의 모습  
한없이 그리오.

1950년대 한국현대시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섬광처럼 시를 뿌리다  
순간처럼 사라진 그대  
아~ 얼마나 강렬한 생존이었던가.

지금 이 돌에  
그대를 새김에  
새삼 그리워지는 생각  
한량없오.

(1988. 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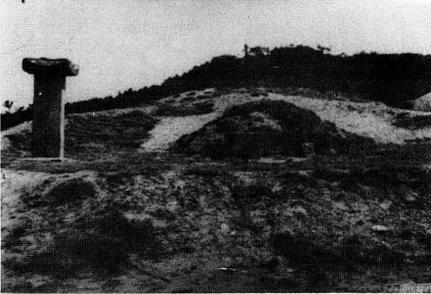
## 향토문화유적 화보



명칭 : 3층석탑

소재지 : 인제읍 상동리 산 1번지

유래 : 조선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며 신남리 암자에 있던것을 소양댐 건설로 인하여 백련정사로 옮김.



명칭 : 박대감 묘, 비석

소재지 : 인제군 기린면 현 1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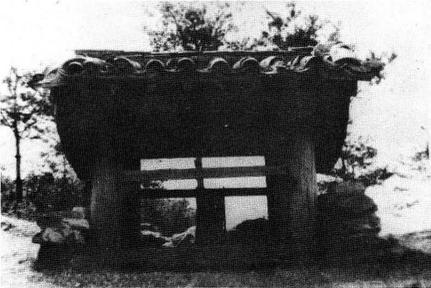
유래 : 고려말 현재 장관급의 벼슬을 한 박원광의 묘와 비석으로, 이 곳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며, 만약 말을 타고 가면 말굽이 땅에 붙는다고 함.



명칭 : 참봉 유재구 불망비

소재지 : 인제군 기린면 하남 2리

유래 : 이조중엽에 벼슬을 하던 사람의 비석으로, 이 분이 왕릉을 지키에 온 정열을 기울여 말은 바 일에 충실하여 그 책임과 공을 찬양하여 세운 비



명칭 : 효열부 순천김씨 정려각

소재지 : 인제군 기린면 북 3리

유래 : 소화 7년 10월에 문중에서 건립되었으며, 효열부 순천김씨는 이두영의 처로 비각문은 통정대부, 군부주사를 역임한 평산인 신헌대가 쓴 40자 가량의 현판이 걸려있다.

## 향토문화유적 화보



명칭 : 효행 이영순 정려각

소재지 : 인제군 기린면 현5리

유래 : 이조 순조 29년(1829) 4월에 가선대부 이조참판을 지낸바있는 평창인 이영선의 정려각이다.



명칭 : 효열부 강릉김씨 정려각

소재지 : 인제군 상남면 미산2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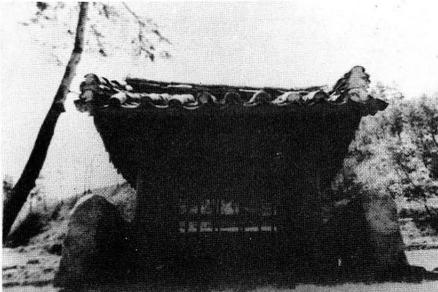
유래 : 1908년 이서구, 강릉부사 김성규순찰사 당시 남편 김형인이 세상을 떠나자 청춘에 과부가 되었으나, 친정부모를 멀리하고 시부모섬기기를 하늘같이 알고 백수가 되도록 수절을 하여 그 효행을 알리고자 세운 비임.



명칭 : 전주김씨 열녀문

소재지 :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유래 : 이조말기 귀둔리에 거주하는 김해 김씨와 결혼한 전주김씨가 남편과 사별하고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기지않음과 유복자를 의지하여 일생을 바치고 일편단심으로 굳은 절개를 지켰다고 세운 비임.



명칭 : 삼척김씨 열녀문

소재지 :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유래 : 병자호란당시 경기도 양주군 풍향현에 살고있던 조옥립장군의 처 삼척 김씨의 행실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 건립되었음.



## 秋夕名節

인제문화재단

會長 李明喆

三國遺史에 新羅 유리왕 九年에 國內六部の 婦女子들을 두 편으로 갈라 두 王女로 하여금 그들을 인솔 指揮監督하여, 七月 既望日 (16日) 로 부터 날마다 箕箒(베 짜기)을 해서 8월 보름까지 倅(베)의 質과 量의 成績을 審査하여 勝負를 決定하고 倅에서 술과 음식을 차려 이긴 편을 대접하였다고 한다. 이 날, 달 밝은밤에 위로는 임금과 文武百官大臣을 비롯하여 아래로, 徐羅伐(新羅慶州) 수십만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王女와 婦女子들이 밤이 새도록 會蘇曲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踑탕하고 흥겹게 놀았다고 한다. 이것을 그때 말로 嘉俳 가위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가을의 한가운데 속하므로 中秋요 名節이기에 中秋節이라 하여, 東洋文化圈에 東하는 中國, 日本, 越南, 印度에서도 이 날을 큰 名節로 즐기고 있다. 한가위, 가위날은 新羅時代에 비롯된 우리民族 고유의 말로서 嘉俳·가위·嘉俳日·가위날·한가위로 表記 變異된 독특한 土着語요, 祖上의 純粹한 말이다. 이 날이야말로 祖上 이래 最大의 명절이요 겨레의 날이다. 그래서, 옛분들은 ‘더도말고 덜도말고 늘 한가위와 같기만 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가위 날은 木욕재계하고 화려한 한복을 입고 “추석부슴”이라 하여 송편을 만드는데 蠶絲를 빚어, 桴(콩)알밤으로 속을 넣어 술빚을 따다 깔고 쥔 송편과 밤단자 대추단자 토란국 같은 것을 많이 먹는다. 이와같은 둥근 모양의 음식을 먹는 것은 달의 둥근 形

狀을 象徵하는 것이라고 한다. 秋夕 5~6日前에 祖上墓의 伐草를 하고 秋夕날 子孫들을 이끌어 햇곡으로 만든 음식과 햇과일 햇곡으로 빚은 술로 祭饗를 차려 祖上에게 天神 차례를 올리고 省墓를 마친 다음에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祖上崇拜의 마음을 기린다.

요즈음은 가끔 청소년들의 노래자랑이나 이웃親戚 親舊집을 轉傳하면서 술과 음식을 들며 童心의 時節에 陶醉되어 어린시절 뒷동산 落落長松 숲에 떠오르는 보름달을 보고 두손 모아 合掌하며 高개속여 所願 成就를 氣數하는 모습을 상기하며 잊혀져 가는 옛것을 오늘에 되돌아 보게 한다. 또한 秋夕名節은 他鄉各地에서 마음의 눈으로 故鄉의 옛洞山을 그리며 아쉬워 하게끔 한다.

그리고, 五穀이 무르익는 結實의 季節에 옛날에 그리던 追憶의 동산을 再吟味하며 어린시절을 回想하게 하고 사랑의 眼目을 기르는 最大의 名節이기도 하다.

또한, 秋夕名節은 成長期 活動의 季節로써 人生의 잊혀져가는 즐겁고 아름답던 過去를 돌아보게 하고, 장래에 대한 꿈을 劃하는 眼目을 給려줄 仁者(核)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8월 한가위 추석날은 祖上의 날이요, 그렇기에 祖上을 精誠껏 섬기고 받듦과 함께, 道理와 義務를 다했던 옛祖上들의 아름다운 遺習을 길이 이어 나가야겠다.



# 端 午 祭

남북청년회  
회장 김진욱

## 《端午의 由來》

음력 5월 5일은 端午이외에 수리(戌衣) 天中節, 重午節, 端陽, 수릿날 등으로 불리어 왔으며, 옛날에는 農耕의 豊作을 기원하는 제사날이었으나, 지금은 農村의 名節로 되어 각가정에서 쑥떡, 수리치떡 등 갖 있는 음식을 마련하여 端午茶禮를 지내기도 하고, 女子는 菖蒲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男子는 씨름 등의 놀이를 하였다.

端午의 根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新羅末 “궁예”가 五月 端午日 탄생으로 父母를 해친다고 하여 버림받은 이야기로 보아, 三國時代 以前부터 내려온 歲時風俗인 것 같다.

옛부터 음력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등 月日이 홀수이면서 같은 숫자가 겹치는 날은 대개 명절로 정하여 즐겨왔으며, 그중에서 5월 5일은 陽이 가장 강한 날이라 하여 큰名節로 생각해서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 《古代 端午行事》

東國歲時記와 歲時雜記에는 임금이 애호(艾虎=호추랑이)를 만들어 신하들에게 주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端午扇(단오부채)를 만들어 임금께 바치거나 親知와 이웃에 돌리기도 하였으며, 그중 전주부채는 전국제일로 알려졌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진 風習이고, 선물이 아니라 판매에 의한 기념물의 형태로 殘存하고 있다.

端午 날이 되면 天中符籙이라 하여 나쁜 귀신을 쫓기 위해 符籙을 만들어 부쳤으며, 대궐에 赤符(붉은 부적)를 올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부적에는 “5월 5일 天中節에 위로는 하늘의 녹을 받고, 아래로는 땅의 福을 얻어 치우(蚩尤)神의 구리머리, 쇠이마, 붉은입, 붉은혀의 4백 4가지의 病이 일시에 없어져라. 빨리빨리 범대로 시행하라”는 글을 썼다고 하며, 그 외에 처용상이나 桃符를 그려 넣기도 하였으며, 지금의 符籙 붙이는 제도가 여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또한, 菖蒲물로 머리감기, 창포못에서 물맞이 창포물먹기, 창포비녀 꽃기, 창포이슬받기, 艾虎나누기, 쑥떡먹기 등은 僻邪僻病에서 나온 行事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菖蒲와 益母草 등의 약초를 사용하는 僻邪行事이외에도 天中赤符, 端午扇, 醞醢湯, 五色실을 단 玉樞丹 등을 사용한 僻邪行事가 있었다고 한다.

端午前後는 農耕儀禮祭 등 祈豊을 위한 중요한 行事를 많이 하였으나, 嫁樹(나무시집 보내기), 石戰, 씨름, 추천 등의 農耕儀禮의인 行事와, 現存 하는 강릉의 端午굿, 靈山의 文戶長굿, 慈仁의 한장군제, 軍威의 三將軍祭, 三陟의 烏金簪祭, 安邊의 霜陰神祭 등 端午굿이 全國의인 分포로 行事되어 왔으며, 黃海道 일대의 탈춤이는 鳳山탈춤의 경우를 보더라도 宗教儀禮式놀이 오락위주로 변모된 사실을 알 수 있



88년도 단오제 행사의 씨름경기

다. 端午行事は 南部地方보다 中北部地方 이상에서 성행하였으며, 그 외의 오락으로 그네뛰기, 씨름, 활쏘기, 말타기, 윷치기 등을 하였다고 전한다.

### 《地方 端午行事》

現存하는 端午祭 중 강릉단오제와 南北 端午祭를 소개한다.

○ 강릉端午祭 - 現在 중요무형 문화재 제 19 호로 지정된 강릉단오제는 우리나라에서 現存하는 郷土神祭 중 역사가 깊고 가장 큰 규모의 祭儀이며 축제 行事이다.

이 祭儀는 음력 4月 15日 대관령 國師 城隍神과 女城隍神을 모셔내려와, 음력 5月 5日 端午를 前後해 강릉 남대천가에서 제사를 지내며 19개의 굿을 하고, 관노가 면회, 농악, 씨름, 그네, 줄다리기, 투계 등 각종 민속놀이를 벌이는 마을 공동의 神仰 儀式이며 놀이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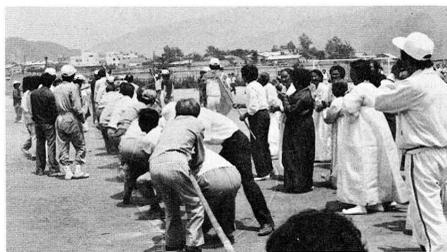
강릉단오제는 전국적인 行事로 치루어지며, 참여인원은 경상도와 경기도 전라도일대 모두가 참여하는 祭儀가 되어 버렸다.

○ 南北 端午祭 - 現在 인제읍 남북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모임인 南北青年會에서 주관하여 치루어지는 端午祭는, 會員 70여 명이 수년전까지 내려오던 端午祭를 87년 부활하여 마을 공동의 축제행사로 인제남 국민학교 교정에서 매년 씨름, 그네, 줄다리기, 축구, 농악놀이 등을 개최하여 단오

의 뜻을 전하고 있으며, 재정의 어려움과 놀이의 소재 빈곤으로 행사내용이 알차지 못한점은 있으나, 회장 김진옥씨와 회원들의 노력으로 단오행사가 치루어진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남북 청년회에서는 우리고장 특유의 소재를 찾아 앞으로 훌륭한 端午行事を 치루려 하고 있으며, 남북회에 국한되지 않고 인제군민이 함께 하는 端午行事が 되기를 바라고 있다.

### 《端午行事的 意義》

정월대보름, 팔월한가위와 함께 우리 고유의 3대 名節중의 하나인 5月端午를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면에서 다시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고유의 民俗을 發掘, 保存하는데 그 意義를 두고 싶다. 마을 단위의 축제형식을 벗어나지는 못하였지만 端午行事を 치루면서 마을 공동체의식이 형성되고, 아낙네들이 그네를 뛰며 자신들의 技를 세우고 남정네의 힘자랑과 함께 농악놀이를 풍년을 기원하는 農村生活의 根本이기에 生活文化로써 자리를 잡는 名節로 부활된다는 점에 갈채를 보내고 싶다. 강릉단오제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다른 명절에 비해 이제 잊혀져 가는 端午 民俗을 인제지역 文化속에서 발전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는것과 이 文化를 지키려는 사람들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것은 앞으로 많은 인제군민들의 참여속에 인제 지역문화발전의 길잡이가 되리라 기대한다.



88년도 단오제 행사의 줄다리기



##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 설날을 되찾으면서...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이만철

우리의 옛조상들은 1년중 가장 큰 명절을 설날로 정하고 또한 해(日)보다는 달(月)을 세시(歲時)의 기준으로 삼아왔으며, 이때에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들의 음덕을 기리고 웃어른들을 찾아 세배로 신년 인사를 드리고 1년운을 기원하는 여러가지 풍속을 지내왔다. 외래문화를 도입하면서 각종 레저에 밀려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 민속의 날로 정해지면서 여러가지 풍속이 잊혀져왔다. 그러나, 89년부터 정부에서는 민속의 날을 정식으로 설날로 바꾸고 설날을 전후하여 3일간의 법정 휴일로 책정되면서 우리 고유의 대명절의 맥을 이어 가게 되었다. 이렇게 되찾은 설날을 맞으면서 여러가지 세시예절 풍속과 민속놀이를 알아본다.

### 〈상 차리기〉

우리나라 각 지방에 따라 또한 각 가정에 따라 상 차리는 법이 다르나 형편에 맞추어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 된다. 설날 차례상에는 메(밥)와 갹(국)대신 떡국을 차리고 과일·나물·탕·적등으로 3, 5, 7등 홀수로 차리는 것이 원칙이다.

紅東白西(홍동백서)~ 차례상의 맨 앞 줄에다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과일은 서쪽에 차린다.

左脯右醢(좌포우해)~ 북어포나 대구포는 왼쪽에 문어포 같은 것은 오른쪽에 차린다. (방향은 신위를 모신 북쪽을 기준하여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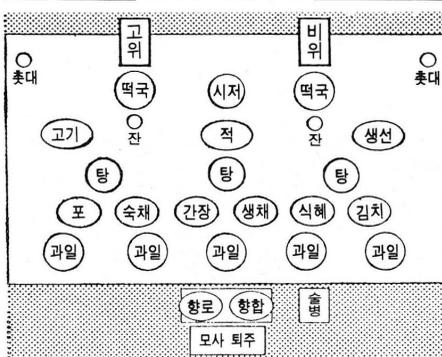
魚東肉西(어동육서)~ 생선종류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차린다. (頭東尾西의 원칙에 따라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을 향하게 된다)

※ 차례상앞에 향 그릇(모래를 담은 그릇)을 놓고 오른쪽에 주전자와 강신잔을 차린 酒架를 놓는다.

### 차례(茶禮)

해가 뜬 무렵이나 아침 8~9시 사이에 제사 때와는 달리 세주는 한잔(일반 세주는 3잔)만 따르고 축문은 읽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차례를 지내기전 손발을 깨끗이 씻고 옷은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고 지내야 한다.

차례상 차림의 예



### 세배

설날의 세배는 옷을 단정하고 깨끗이 입고 조상에게 먼저 차례를 지낸뒤 웃어른께 해야 하며 아랫사람이 웃사람에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래는 부부끼리도 세배를 하였으며 북쪽을 상하로 동쪽에는 아버지가 서쪽에는 어머니가 동시에 맞절을 하고 앉은 뒤 아들 손자등 나머지 가족들이 이들에게 절을 한다. 절을 할 때는 숙연하게 하여야 하며 절을 한뒤 뒤로 물러나 앉는것 까지 부드럽게 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근래에는 덕담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없었던 말들이다. 원래는 아랫 사람이 웃어른에게 “올해도 건강하시고 오래 사십시오”라고 하면 웃어른은 아랫 사람에게 “오냐 너 희도 과세(過歲) 편안 했느냐” 등으로 응답했다.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웃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면 결례가 된다. 또한 웃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덕담을 할 때에는 명령투보다 상대방이 올해에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도록 복돋아주는 말투가 좋다. “올해에는 꼭 시험에 합격해야지” 하는 식으로 새해 소망을 긍정적으로 축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 <민속놀이>

#### 윷놀이

윷놀이는 지금은 단순한 오락으로 즐기고 있지만 그 유래는 세초에 농민들이 그 해에 농사가 잘 되는지를 점치는 고대 농경시대에서 가져온 풍습의 하나이다. 옛날에 마을 부락의 젊은이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하였는데 이긴쪽에 풍년이 들었다고 한다. 남부지방에서는 방안에서 강낭콩이나 팥을 갈라 만들어 놀기도 하였고 중부지방에서는 박달나무로 반쪽을 갈라 3~4cm의 크기로 만들어 명석을 깔고 윷놀이판을 하였으며 명석 밖으로 나가면 “낙방”이라하여 말을 쓰지 못하였다. 또한, 옛날

에는 백증이 설때 윷놀이로 등수를 가려 황송하지 및 광목을 상품으로 주는 광대한 놀이도 즐겼다.

#### 줄다리기

지금도 지방 축제 행사때나 학교 운동회에 많이 즐겨 놀고 있는 놀이로 가장 남성적인 면이 있으며 단체의 협동심을 나타내며 여러명이 힘을 겨누는 놀이다. 옛날에는 양편을 숫줄편, 암줄편으로 나누어 이기는 편에 풍년이 든다는 속신(俗信)에서 시작 되었으며 암줄, 즉 생산과 관계되는 여성편이 이겨야 그해 풍년이 든다고 전해오고 있다.

#### 제기차기

음력 정초를 전후한 겨울철에 성행되었던 제기차기는 고대 중국에서 무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고안된 축국이라는 놀이에서 연유되었다고 하며 축국은 가족주머니 속에 털 형질같은 부드러운 물건을 채워 만든것으로 이 기구를 차 올려 많이 차올린편이 이기는 것이라고 한다. 조선 왕조시대가 되면서 한자어 축국이 우리 발음화되며 “적이”로 변했고 그 후 제기로 바뀌어 졌다고 한다. 한발차기, 양발차기, 한발 떼어 차기, 여러명이 둘러서서 교대로 차는 동네 차기도 있다. 어린이들의 순발력 향상과 지능 발달에 매우 유력하다. 재



널 뒤 기

## 세 시 풍 속

료는 엽전이나 얇고 둥그란 쇠에 (가운데 구멍이 있어야 함) 종이(미농지, 문창호지, 비닐)로 만든다.

### 널뛰기

널뛰기는 정초와 단오 추석때 행하여지는 여성들의 놀이로 긴 송편을 이용하여 중심부에다 가마니나 명석을 말아 깔고 널판지 양쪽에 올라서서 서로 발을 구르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행하여 지는 놀이로 색동 한복을 입고 푸른하늘 높이 뛰어 오르는 여자의 모습이 매우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인다.

### 팽이치기

주로 얼음판 위에서 방추형 모양으로 짠 팽이를 돌려 놓고 가는 나무 끝에 끈을 매단 팽이채로 때려 계속 돌리는 놀이로, 서로 오래 돌리기 또는 팽이가 서로 부딪쳐 넘어 뜨리기 등의 경주도 있다. 팽이 위에다 크레파스나 물감으로 여러가지 색깔을 하여 돌리면 그 모양이 매우 아름답다. 팽이치기는 어린 아이들의 활동적인 놀이로서 옛날에는 많이 즐겨 놀았으나 근대에 보기 어려워지는 놀이로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다.

### 달맞이

정월 대보름에 행하여지는 달맞이는 달이 밝은 세상을 약속하는 기원의 대상으로 숭상 되면서 시작되었다. 솟아오르는 밝고 둥근달을 남보다 먼저 보고자 마을 등산에 올라 햇불을 땅에다 세우고 두손을 모아 1년의 소망을 빌었다. 햇대는 자기 나이대로 묶어 불을 붙여 다 탈때까지 휘둘렀으며 농부는 풍년을 노총각은 장가들기를 서당 도련님은 과거에 급제하기를 기원 하였다.

### 썰매 타기

주로 얼음판에서 송편이나 통나무로 밑에다 철사나 대장간에서 쇠로 칼날 같이 얇게 만들어 붙이고 앉아서 양쪽에 나무꼬

챙이에다 철사나 못을 두들겨 뾰족하게 만들어 박아 얼음을 짚어 끌아가며 타는 놀이로 수복후(60년대)까지도 어린이들이 매우 즐겨타며 놀던 놀이로 활동적이고 겨울철 추위를 이기는 놀이로 성행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거의 없어지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 연날리기

설날을 전후로 대보름까지 이어지는 연날리기는 옛부터 젊은이들의 기상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세시 풍속놀이였다. 연날리기의 유래는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전해오나 연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 열전에 최초로 연에 대한 기록이 있다. 신라때 염증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키 위하여 한밤중에 연에 불을 붙여 떨어진 별이 되살아 났다고 소문을 내 진압군의 사기를 북돋우는데 이용했다고 한다. 또 고려때 최영 장군이 탐나라에서 몽고군을 점령할 때 큰연에 불을 붙여 성을 공략 했다고 전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영조는 “근래에 연 날리기가 안보이니 백성들이 무슨 근심이 있는가”하고 민생을 걱정하기도 했는데 그로부터 연



연날리기

날리기가 크게 성행 했다는 말도 전해져 내려온다.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연날리기는 “送厄仰福”의 풍습이 담겨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날리기는 오락과 민속신앙의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민속신앙으로는 액막이 연날리기가 본류다. 옛부터 정월 대보름에 연에 “厄”를 써서 액운을 멀리 날려 보낸다는 의미로 풍속을 즐겼다.

###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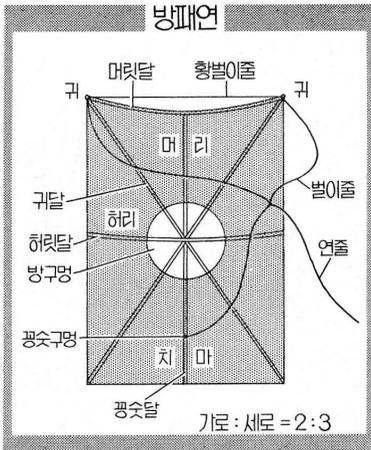
연은 전통연과 창작연으로 구분된다. 형태 빛깔 점의 위치 꼭지 갈래발에 따라 이름이 각기 다르다. 우리나라의 연종류는 줄잡아 1백여종이나 된다. 대표적인 전통연은 방패연으로 직사각형에 가운데 구멍이 뚫려 바람이 세도 잘뜨며 힘이 워낙 좋다. 방패 연이나 가오리연처럼 입체화 시킨것이 바로 창작 연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연은 충무통영의 거북연 봉화연 부산까지연 고기비늘연 등이 유명하다.

### <제작>

대·실·한지만 있으면 된다. 대나무를 가늘게 잘라 6개의 살을 만든다. 이 중 머릿살은 약간 짧게 허리살은 가늘게 한다. 연의 길이는 가로 세로의 비율이 2대3으로 하며 가운데 구멍지름은 가로길이의 비율이 2대3으로 하며 가운데 구멍지름은 가로 길이의 2분의1 세로 길이의 3분의1쯤 잡으면 된다. 실은 머리살의 양쪽끝과 장살이 교차되는 지점 중살의 아랫부분 등 4군데에 잡아매면 훌륭한 방패연이 된다.

### <놀이>

높이 날리기와 짧아 먹기가 있다. 연을 얼마만큼 높이 날리느냐를 겨루는 놀이는 주로 어린이 놀이에서 이용된다. 바람이 강할 때는 연을 높이 날리기 힘들므로 바람이 많이부는 날은 피하는것이 좋다. 높이 날리기 위해서는 연이 크기에 비해 가벼워야 하고 연실도 가벼워야 좋다. 짧아먹기는 2개의 연실을 교차시켜 하는 놀이다. 짧아 먹기 기술은 연과 실에도 달려 있지만 그 보다는 조종 기술에 크게 좌우된다. 연은 상대보다 높이 뜰 때가 유리하므로 되도록 상대 연보다 위로 올리도록 해야 한다. 옛날에는 실에다 유리가루를 살짝 먹여 연싸움을 하기도 했다.



## 세 시 풍 속

### 귀신 쫓기

정초(귀신의 날)에 방문 앞 처마끝에 줄을 거느리고 그 줄 가운데에다 체를 걸어 놓고 마루 앞의 봉당에다 화로에 쏘이나 기타나무에 불을 놓아 연기를 피웠으며 신발을 밤새도록 얹어 놓아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였다고 한다.

걸어 놓은 체 : 귀신이 들어오다 방문 앞의 체를 보고 체 구멍을 하나하나 세다보니 날이 밝아져 다시 돌아 간다고 함.

화로의 연기 : 귀신이 들어오다 뜨거운 불과 매운 연기로 인하여 도망 갔다함.

얹어 놓은 신발 : 귀신이 신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

### 콩으로 점 치기

정월 대보름날 콩 12알을 수수대(깡)를 잘라 쪼개어 그 속에 콩 12알을 넣고 다시 수수대를 포개어 끈으로 묶은 다음 함지에다 물을 담아 놓고 콩을 넣은 수수대를 함지 물에다 담그었다가 하루 밤을 새고 아침에 꺼내어 보아 콩알이 많이 물에 불은 달은 장마가 지고 불지 않은 달은가뭄이 온다고 점을 쳤다고 함.

### 병아리 많이 낳기 위한 솔방울 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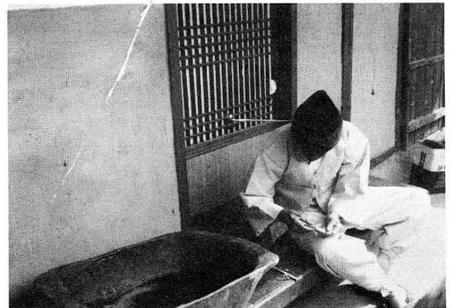
정월 대보름날 닭의 알낭는 둥지 속에다 솔방울을 많이 넣어 두었다가 다시 꺼내어 종두리에 꺼내어 담은 다음 다시 그 솔방울을 마당에 넓게 뿌리면서 금년에는 병아리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하며 사료(옥수수, 기타 곡식)를 같이 뿌려주면 병아리를 그 해에는 많이 낳는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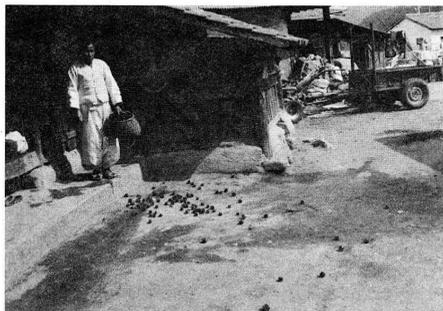
귀신잡이풍습 (기린면 서 1리)

### 새 쫓기 의식

정월 대보름날 긴 나무 장대위에 가로로 짧은 막대기를 활대 형으로 하여 끈으로 매고 그 줄에다 종이를 새모양으로 오려 단후 일정한 장소에 세운 후 두 손을 저어가며 “새야 새야 우리 논·밭에 앉지 말고 저 건너 부자집 논·밭에 날아가 앉으라”고 하면서 새 쫓기 방법의 의식을 가지면 그 해에는 논·밭에 새가 앉지 않아 곡식의 손실을 막았다고 하나 지금은 거의 이런 풍습이 없어지고 원대리나 서 1리 기타 농촌 몇 군데에서 일부 행하여 진다고 합니다.



콩 12알로 12개월의 일기를 점치는 노인 (기린면 서 1리)



병아리를 많이 낳기 위한 방법으로 술방울을 뿌리고 있다(기린면 서 1리)



논과 밭에 각종 조류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년초의 행사(기린면 서 1리)

## 默示속의 無化

향토극단 「은슬피」  
총무 한 구 현

“이 공연이 끝나면 다시는 연극을 하고 싶지 않다”는 연출가의 말이 떠오른다. 아울러, “연극은 마약”이라는 단원 모두에게 준 말도. 후자로 인해서 우리 향토극단 「은슬피」는 오늘까지 주옥 모임을 가져왔다. 단원들 모두의 열성에 의해 그렇게 맥(脈)을 이어온 것이다.

우리 시대의 弊病은 철저하게 苦悶하지 않고 철저하게 絶望하지 않는 데에 있다. 어렴풋한 希望이나 莫然한 期待 속에 自身과 그 주위에 어둠을 期曠하려 든다. 그러나, 人生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미지근한 希望도 아니며, 假面을 쓴 期待도 아니다. 暗黑의 밤 속에 燦爛한 아침이 나타

나리라는 그 情性化된 期待가, 봄이 가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오리라는 機械化된 連續이 人間의 精神을 腐蝕시키고 있다.

또한, 아침이 올 것을 생각하며 밤을 견디는 사람은, 봄을 생각하며 겨울을 사는 사람은, 미리 내일을 내다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眞正한 <밤, 겨울, 오늘>의 意味를 喪失한 사람들이다. 밤이 아침과, 겨울이 봄과, 내일이 오늘과 斷絶되었을 때, 그것들은 비로소 꾸밈없는 자기의 表情을 지니고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어떻게 <밤, 겨울, 오늘>의 우울하고 침통하며 까무러치도록 煩悶, 絶望하지 못한 사람이 저 눈부신, 純粹하고 밝음의 아

침, 봄, 내일의 戰慄을 所有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아침의 喜悅을 맛보기 위해서는 아침 그것을 이 밤에서 빼어내는 일이다. 말하자면 아무 것도 期待하지 않은 채, 아무 것도 希望하지 않은 채 沈黙과 永遠의 그 어둠속으로 沈沒해가는 그 悲劇의 作業을 繼續하는 일이다. 마치, 예수에게 있어 復活을 背景으로 한 十字架는 舞臺 위의 세트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며, 어린아이의 木馬 그것보다도 값어치 없는 죽은 나무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十字架의 意味는 復活이라는 奇蹟에서 斷絶되었기에 오늘과 같은 不滅의 값어치를 지닐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象徴의 意味의 復活은 우리 生活에서도 可能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것은 生の 完全한 斷絶, 完全한 無, 完全한 絶望 속에서 可能해 진다. 可能을 拋棄하였을 때 可能이 찾아오는 逆說이 우리에게도 있다. 沙漠에 어리는 綠地의 신기루마저도 자취를 감추고 아무런 影像도 存在하지 않는, 그 空虛한 大地에 이르기 위해서는 既存의인 모랄과 그 價値와 行動에 대해서 끝없이 「No」라고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不毛의 領域에 潛入하기 위한 참으로 고되고 슬픈 施路이다. 그리해서 주위의 風景, 거리, 삶의 純潔, 이런 것들이 어제의 것과는 全然 다른 얼굴로 우리 앞에 復活하는 戰慄을 體得 하게 된다.

이러하므로, 지금은 또다시 새로운 모랄이 율터야 할 時期이다. 그 證據와 前例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絶望을 되풀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투른 希望보다는 絶望의 冒險을 우리는 아직도 選擇해야 한다. 이 아픔과 眞正한 孤獨이 없는 眞正한 「行爲」를 期待할 수 없다.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毒杯를 들며 행한

유명한 辯明의 맺음말인 「헤어질 때가 왔다. 서로를 저마다의 길을 가도록 하자. 나는 죽음으로, 제군들은 삶으로 어느 편이 좋으나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고 한 이 말을 약간 變形하여 「眞正한 삶의 意味를 찾는 것은 오직 自身만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

이 모두가 劇中 臺詞 속의 〈악어의 눈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눈물과 苦痛 속에 얼룩져 피는 꽃이 있음을 우리는 알자.

이렇게 몇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을 장황스럽게 부산을 떤 것은 ‘演劇은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라는 認識을 넓히는 契機가 되고 差地點이 된 「그 해 마지막 여름」이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편으로 아쉬움을 禁할 수 없는 점은 여러 가지 형편상 4경 중의 일부를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해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우리 향토 극단 「온술피」의 現時點에 對한 狀況이며 現實이다.

그러나, 劇中 할머니가 默示 속에서 모든 것을 無化시킴으로써 우리에게 象徴의 意味를 부여하였듯이 목마른 渴症 뒤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달큰한 소낙비가 올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

「연극」은 역시 「痲藥」이니까.

〈參考〉

「악어의 눈물」

〈만약 악어가 물가에서 사람을 발견한다면 가능한 한 이를 죽이고, 그 후에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잡아 먹을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셰익스피어가 그의 비극 「오델로」 등에서 借用함.

즉, 〈악어의 눈물〉이란 말하자면 ‘거짓 눈물’을 뜻하며, 그 악어는 僞善의 象徴이다.



## 향토문화 계발 촉진

숨다리합창단

부회장 이 상 각

80년대부터 정부의 시책아래 향토 문화 찾기 운동이 각지역에서 주민들의 동참아래 전개되었다. 그러나, 모든 문화적 형태는 최초의 단계이기 때문인지. 행사적인 인상이 너무 짙고, 행사형의 문화까지 만들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천년의 전통문화를 가진 역사의 근본을 바탕으로 맥을 찾아 전승하고, 대도시에 집중되었던 도시문화를 각 지역에서도 수용 하기에는 어렵지도 않은 일이었던 것으로 믿는다. 물론, 국민의식이 높아져 문화를 수용하여 적응시키는데 어렵지 않은 바탕위에 지방마다 문화원이 설립되어, 향토문화의 창달 사업에 전력을 기함인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그 중 내가 느낀 우리 인제 지역의 문화 전개 사업을 보면, 84년도에 설립된 인제 문화원에서는 이 지역의 지리적 여건에 주어진 산림지대의 옛풍습을 발굴하는데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매스컴을 통하여 알려진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인제 뗏목과 인제 솟둔골 솟굽기 놀이, 또한 인제 무쇠 점골 보습 만들기 등을 발굴하여 강원도 민속 예술 경연 대회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써 이 고장의 명예를 높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옛 조상님들의 생활상을 인식시켜준 교육적 가치가 한층 더 중요하며, 이를 전세계에 홍보시켜준 의미도 또한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전통 문화를 발굴 전승 보존케하는 사업외에 지역 사회 교육(문화강좌, 예절

강좌, 경노사상강좌등)과 애향 운동 전개(유적지 순례, 문예지 발간, 농악기 전수 및 풍물 강습)사업과, 향토사료 수집으로 전시실을 운영하여 교육 연구 자료 및 홍보 사업에 큰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받아들여 동참의 계기를 마련한 곳이 바로 문화원이라는 것으로, 전국의 각 지방에서도 똑같이 부흥된 것으로 본인은 생각된다. 언제인가 어느 책에서 캐나다 “포고” 섬에서는 주민 자신이 참여해서 스스로 만든 “포고” 섬 영화의 제작을 통하여 향토애의 회복에 성공한 사례의 글을 읽은 적이 생각난다. 우리도 이제는 이 고장의 주인으로서, 내고장 문화 찾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남과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경쟁심을 가져 사회에서 시간을 내지 못하고, 돈버는 사업에만 열중하



숨다리합창단원 (원주에서)

여도 참다운 생활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인은 그런 유의 사람은 백명중의 한 사람이나 있으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오천 년의 역사속에 수십 번의 외침을 받고도 오늘날과 같이 부강으로 발전하여 왔고, 그 정신이 옛부터 두레정신으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훌륭한 민족 정신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문화적 수준을 높였고,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가진 국가이지만 세계에서 우리러보는 코리아가 되었다. 몇 년 전만 하여도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던 나라가, 이제는 강대국에서 차관을 해결 정도의 나라로 되었으니, 우리 국민의 정신적 향상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먹고 사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누구나 믿는다. 시간과 공간을 이용하여 문화적 여가를 즐기고, 후세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전승시켜 맥을 이어가는 정신도 가일층 더 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

은, 이 지방은 현재 예술의 불모지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연극이나 사진·문학·음악 등에 소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잠재하고 있다. 그러던 중, 다행히도 87년도 12월에 「은솔피」라는 연극 단체가 탄생되어 2회의 공연을 가졌고, 88년도 5월에 「숨다리」 합창단이 탄생되어 발표회와 도경연대회까지 출연하였으며, 사진 동우회도 88년도에 구성되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문학 동우회도 생겨 이 지방의 예술성을 가일층 늘리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모임의 역할이 청소년들의 교육적 가치와 주민 문화 수준을 고취시켜 함양하는데는 물론, 정서적인 생활을 수용하는데 또한 좋은 본보기라고 믿으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단체가 새로이 탄생되어 지방문화 육성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또한 이 고장 주민은 주인 정신을 가지고 내 고장 문화 발전의 촉매자로 역할을 다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

인제 뗏목 아리랑

우 수 나 경 침 에 물 풀 리 니  
아 리 랑 타 령 이 어디 서 났 - 나 -  
합 강 정 - 뗏 목 이 떠 내 리 - 간 다 -  
얼 었 다 - 녹 아 지 니 산 에 서 - 나 내 -  
아 리 아 리 스 리 스 리 - 아 리 아 리 요 -  
아 리 아 리 - 고 개 로 넘 - 어 - 간 다 -

뗏 목 아 리 랑

1. 우수나 경침에 물풀리니  
합강정 뗏목이 떠내려오네
  2. 봉의산 정자는 구경정자  
소양강 정자로 만나보세
  3. 십년에 강산이 변한다더니  
소양강 변할줄 뉘알았나
  4. 뗏목의 생활이 좋다더니  
신식의 생활로 변해만가네
- 후렴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리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 향토 예술단체 활동

### 솜다리 합창단

우리는 시대적 변함을 노래로 표현하면서 맥을 이어가고 있다. 한민족의 두레정신을 기리며 부르는 우리 합창단의 화합된 노래소리는 정서적 공간을 메우고 있다.



- 창단 : 1988년 6월 17일
- 임원 : 회 장 하영란  
부회장 이상자, 최종숙  
총무 이경자  
지도 윤병하  
피아노 황현주
- 단원 : 이은주, 임영주, 김선희, 정영자, 이양순, 전옥자, 최옥섭, 최종숙  
심경숙, 장분애, 맹영미, 김은경, 김영미, 이미애, 강복희, 안옥녀  
정정숙, 이경자, 최미숙, 박옥화, 정순금, 엄옥란, 고순문, 최종옥  
박복순, 최승숙, 김용순, 송현철, 김혜숙, 이수진, 이화자, 백옥희  
윤애자, 장경숙, 조경화, 김정희, 김명희, 조근옥, 김화숙, 박옥순  
엄은주, 지정옥, 박정자, 김옥순, 전해림, 이수남, 김정현, 홍순희  
이춘희, 최현주, 표춘희, 이상자, 황현주, 윤병하, 최창구

## 향토 예술단체 활동

### 향토극단 「은슬피」

향토 극단 「은슬피」는 지역 연극 문화 창달과 그 맥을 잇고 성(城)을 쌓기 위하여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의 관심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동참하여 힘이 되어 주었으면……

사무실 { 인제문화원내 (461-6678)  
아미화실 (461-0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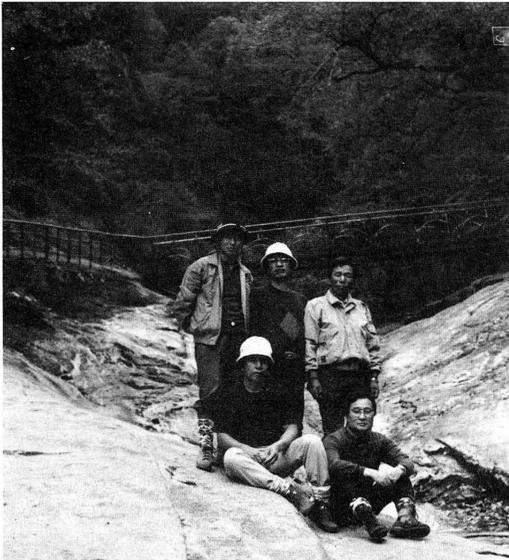
- 창단 : 1987년 12월 22일
- 공연 : 제 1회 1988년 2월 19일 (토끼와 포수)  
제 2회 1988년 9월 9일 (그 해 마지막 여름)
- 임원 : 단장 장복한 (원통고 교사)  
총무 한구현 (인제고 교사)  
재무 홍혜경 (인제 전신전화국)  
간사 송병선 (인제고 교사)
- 단원 : 장복한, 정시현, 한구현, 송병선, 차재연, 이덕배, 정재학, 김미영, 홍혜경, 한명희, 이영숙, 안선희, 유연배, 황혜화, 이상각, 김영만, 천미숙, 김순복, 이운철, 남정우, 김성호, 강미영

## 향토 예술단체 활동

### 내설악사진동우회

산 좋고 물 좋은 내고장 인제에 우리들은 역사의 좌표를 시대적으로 정리하고 향토 사진문화의 도약적 발전을 기리고자 여기에 모였다. 참뜻이 있는 분은 함께 회원이 되어 힘을 보태 주시기를…….

사무실 : 대한사진관內 (461-2298)



○ 창설 : 1988년 5월 11일

- 회원 : 오 정 진 (인제읍 남북 1리)
- 전 영 환 (인제읍 상동 1리)
- 민 중 식 (인제읍 상동 2리)
- 한 용 운 (인제읍 상동 3리)
- 이 주 호 (인제읍 남북 1리)
- 남 덕 우 (인제읍 상동 2리)
- 배 중 환 (인제읍 상동 1리)

위대한 사진가란 사진을 기술적으로 잘찍는 이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처한 당대의 역사적 좌표를 사진으로 자각하고 확인해 나간 이들을 말한다. 이런점에서 위대한 사진작가들의 사진은 단순한 표현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시대의 발언이요 대변인 것이다. 결국(寫眞史)의 계승과 발전은 시대적인 자각을 한 사진가들에 의해 이어지는 시대의식의 전개라고 하겠다. 이러한 시대의식은 사진가들의 성향에 따라 논리적, 이성적인 경우도 있고 직관적인 통찰력에 의해 경우가 있다. 시대의식을 지적(知的)으로 자각한 사진가들은 논리적으로 자기시대의 사진적인 주장을 외쳤고, 직관적으로 통찰한 사진작가들은 작업과정을 통하여 이를 구현 하고자 하였다. 시대의식을 견지한 사진가들이 개성적이고도 독창적인 자기세계를 이룩할 수 있었던것은 자기시대의 역사적 좌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아의 동일성을 정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세계 사진가론(육명심 지음) 서론 중에서 —

## 내린문학동인회

文學을 사랑하는 젊은 동호인들이 불모지 인제에 문학의 꽃씨를 심고 가꾸고자 동인회를 발족시켰으며, 시 낭송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에 문학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문학인을 찾고 있습니다.

연락처 : 내린문학동인회 (461-6999)



○ 설립 : 1988.12.30

○ 임원 : 회 장 최 병 헌  
부회장 한 성 국  
총 무 장 정 섭

○ 회원 : 김실권, 김규중, 장복한, 한구현, 홍진숙, 김선희

- 우리 文學人은 끝까지 苦惱할 줄 알아야 한다.
- 우리 文學人은 高次元의 美를 追求해야 한다.
- 우리 文學人은 나름대로 哲學이 있어야 한다.

## 향토 예술단체 활동

# 아미화실

향토 문화의 도약적 발전과 함께 시대와 사회의 삶의 진실을 파악하고 표출하려는 미술에 뜻이 있는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실 : 아미화실(향군회관내) 461-0553



- 실 장 : 이 운 철
- 지도선생 : 한 명 숙
- 회 원 : 김연숙, 서선희, 이종수, 김은식, 이광준, 오영모, 최성태, 이영숙, 장정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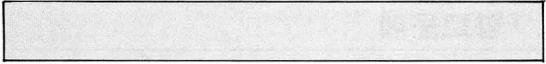
미술가에 있어 현실은 언제나 기록할 가치가 있는 역사의 한 단면이며 비판하고 고발할 가치가 있는 삶의 터전이며 자신의 창조적 이상을 실천에 옮길 도전의 현장이다.

향

토

문

예



郷土文藝

- 을지전망대에서                      최 양 대
- 우리 모두 이제는                      최 병 현
- 기                      도                      오 정 진
- 합강리에서                                  차 재 연
  
- 하늘아래 단 한분                      원 인 선
- 외로운 가슴에 사랑의 꽃을              용 은 주
- 할아버지의 주름살                      박 수 연



향

토

문

예

## 을지전망대에서

서 화 국 민 학 교  
교사 최 양 대

누가 그렸던가  
한 길 위에 또 다른 길을.

누가 꿰었던가  
천지(天地)로 향한 역사의 숨결을

저 꿈틀대는  
금강산의 위용을 보아라!  
별판을 달리는  
조상들의 말굽소리를 들으라!

겨레의 기상이  
살아 숨쉬는 저 곳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영원 또한 있으려니,

심장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핏줄이 거세게 달음질친다.

사랑하는 국토여  
통일의 새벽이여.

## 우리 모두 이제는

내 린 문 학 동 인 회  
회 장 최 병 현

형제여!

친우여!

우리 모두 이제는

마음을 비우자

理念이나 屨望의

찌꺼기를 비우고

바람부는 한나절에

淸淨한 목소리로 소리쳐보자

맑은물 흐르듯

고운소리 들리거든

세월의 한자락 붙잡아 두고

부는 바람 가두어

넘치게 하자

형제여!

친우여!

이제 우리모두 마음을 비워

미움보다 사랑을

눈물보다 웃음을

거두어 담자

# 기       도

인 제 문 화 원  
부원장 오 정 진

끈적이는 욕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너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게 하소서  
해와 별 바위와 물  
이름 없는 풀 한 포기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스스로 빛을 내는  
영혼이게 하소서  
반딧불처럼 깨어서  
길을 찾는 영혼이게 하소서

남과 잘 어울리게 하소서  
농악처럼 신명나게  
우리 서로 어우러져  
하나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어느날  
웃으며 눈을 감게 하소서

## 합 江 里 에 서

서 화 국 민 학 교  
교 사 차 재 연

짜락눈이 그치면서  
산사(山寺) 새벽길을 돌아온 물살이  
양소 가까이와 그 푸르디 푸른  
법의(法衣)를 벗고 있던 오후  
그 날도 우리는  
다 자란 느티나무 그늘에 묻힌  
江의 유산을 찾아 가쁘게  
유년의 물살을 거스르고 있었는데

샛강에서 두꺼운  
시대의 옷을 빠시던 어머니,  
호얏빛 삶을 낀 탁주집  
땃목 노인들의 물발에서 그렇게  
모래를 뒤쓰고 앓고 있던 江

느티나무에 날짐승이 깃을 치지 않던  
이듬해  
노란 달맞이 꽃받침에 달려  
해는 장대빗속으로 떨어지고  
황토빛 물살이 새벽잠을 덜치면서  
서까래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쏟려가는 가슴들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느티나무 아래  
시간보다 먼저 온 미래가  
막막한 물낯을 저울질 하며 곤두박질 쳤다.

## 향토문예

곳이 벌어졌다.

머구리가 시신을 끌어낸 다음날  
햇살같은 칼로 물심지를 자르며  
미치게 아들의 혼을 부르던 무당은  
양소 바닥에서  
목숨의 한쪽을 무너뜨리며 붉게 익은  
해당화 열매 하나를 건져 올리고.

하루를 건너 하루가 오고  
다시 양소에 뱃줄이 걸리면서  
삼초삭 뿌럭 굼던 늦순갈 싸한 향기로  
적신 수건을 강이마에 얹던 이웃들은  
종종 세월의 끄트머리에서  
고향 떠난 고기떼들의 푸닥거림을 듣고.

눈이 내렸다.  
대장간 숯불같이 타 내리는 눈은  
고단하신 어머니의 꿈속에서  
양식처럼 쌓여가고  
소년의 눈망을 깊숙히 강은  
제 키만큼의 자리를 파고  
자꾸 갈았아 갔다.

두갈래 강이 만나는 자리에  
느티나무 새 잎이 트고  
교정의 종소리가 꽃씨처럼 날리면서  
물비늘 털고 다시 살아나는 강  
언저리에 올라서면  
새로 고향을 짓고 있는  
피라미 떼들이 보였다.

□ 88경노효친사상선양 글짓기 입상작 □

## 금 상 &lt;고등부&gt;

## 하늘아래 단 한분

기린고등학교 2학년

원 인 선

고독할 정도로 쓸쓸한 반원을 그리며 멀리로 만상의 그림자를 늘어놓는 달님이 오늘밤은 유난히 존재의 극치를 다하려는 듯 내 뜨락을 가득 채워 온다. 스탠드 불빛을 받으며 수학 문제에 골몰해 있는 내 곁에서 지친듯이 잠드신 어머니의 가는 코고는 소리조차 이밤은 정겹기만하다. 고요한 안식이 못내 평화로와 고즈넉히 어머니를 바라본다.

내가 어머니님으로 인하여 순탄하지 못한 학창 시절과 가정 생활을 영위하게 된 것은 3년 전이다. 가까스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야간 고등 학교라도 반드시 진학해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친구들과 아쉬운 이별을 하고 감자바위 강원도를 벗어나서 수원으로 향하게 되었다. 어머니와 함께 서울 언니네 집에서 며칠 동안의 휴식을 취한 뒤 공장으로 떠나던 날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헤어지는 어머니 품에서 나는 그만 철없이 울음보를 터뜨렸다.

아직 너무 어린 아이에게 주어진 사회 생활, 하루 8시간 꼬박 서서 기계를 다루며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발이 부르르고……. 생활이 고통은 말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진정으로 인내하기 어려웠던 것은 밤마다 기숙사 창문 너머로 밀리는 어둠속에 눈물을 흘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가득히 차 버리는 너무나 벅찬 그리움 이었다.

두 달 동안의 공장 생활을 마치고 구정을 맞아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살을 에려는 듯 옷깃을 헤집는 바람을 받으며 언덕배기를 정신없이 올랐다. 이미 날은 완전히 저물었다. 그 사이 내린 하얀 눈에게 발바닥을 의지하며 집으로 들어섰을 때 집안 분위기가 심상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구정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썰렁한 집안 분위기며 마을 사람들이 안방에 앉아 있는 것이며…….

하지만 오랜만에 집에 온 기쁨에 잠겨 한참을 울고나서 어머니를 찾았을 때, 그러나 집안 어느 곳에도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다. 큰오빠가 놀라지 말라며 나의 손을 잡고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어머니는 중풍으로,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겨우 목숨은 구했지만 반신 불구가 되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는…….

세상에 이런 수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50 평생을 살아오신 분에게 왜 신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셨을까?

나는 그날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그 이튿날 어머니를 뵈러 춘천 병원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느껴야 했다.

병실문을 열고 들어서서 나에게 어머니는 낮선 눈빛을 보내시며 옆에 계신 아버지에게 내가 누구냐고 하신다.

세상에!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냥 굳어진 어머니의 몸을 부둥켜 안고 울 뿐이었다.

저분은 나의 어머니가 분명한데, 항상 사랑을 베풀 줄만 하시던 그 분께서 당신의 딸을 몰라보시는 거다.

그런 어머니의 정신이 제 자리로 오기까지는 녀달이라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는 화장실 출입마저 불가능했고,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손으로 식사하시는 불편을 겪으셨다.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새로운 손과 발이 되기로 결심하고 나의 모든 것(고등학교 진학)을 뒤로 미루었다.

불편하신 어머니와 늙으신 아버지 그리고 어린 두 동생들의 사이에서 나는 농사를 지으며 집안 생활을 꾸렸고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의 쾌유를 보기위하여 간호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머니는 아직 불편하기는 했지만 걸으실 수 있게 되었고, 식사도 혼자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건강해지셨다. 나는 나에 대한 모든 것이 아무래도 좋았다.

하늘 아래 단 한 분이신 나의 어머니를 위하여 정신없이 살면서 조금도 후회 없는 생활을 하려고 애썼고, 힘들었지만 어머니 옆에서는 늘 웃으려고 했다.

1년이 지난 뒤 꿈에서 그러던, 책가방을 들고 교문을 들어서던 입학식 날 어머니는 학생이 된 딸의 모습이 자랑스러워 흐뭇한 미소 간간이 기쁨의 눈물을 보이고 계셨다.

요사이도 어머니의 한약을 다리면서 나는 기도를 올린다. 자식들을 위하여,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한달에 두번씩 꼭꼭 절을 찾으시는 어머니의 정성의 반 만큼이라도, 불편하신 몸으로나마 학교에서 늦게 돌아오는 딸에게 저녁상을 손수 차려주시려는 헌신의 반 만큼이라도 어머니를 사랑하며 어머니를 위한 삶을 살게 해 달라고…….

밤이 깊을수록 짙어지는 달빛 아래 포근히 주무시는 어머니의 숨소리 마디 마디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모아 어머니의 완전한 쾌유를 빈다.

금 상 <중등부>

외로운 가슴에  
사랑의 꽃을

상남중학교 2학년  
용 은 주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자는 뜻에서 생겨난 5월 8일 어버이날! 이 날에 자식들은 평소애 하는 행동보다 부모님께 더 많은 효도를 하게된다.

하지만 우리 동네의 한 할머니는 어버이날이 와도 혼자서고 명절이 와도 외로웠던 분이다.

지금부터 2년 전의 일이다. 어버이날이 몇일 남았을 때였다. 할머니는 매일 산나물과 약초를 캐러 산에 다니신다. 여든이 넘으셨다. 그런데 아직 정정하시다. 아침 일찍 학교에 가는데 할머니께서 바구니를

허리에 차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나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할머니 집을 스쳐 지나오게 되었다. 할머니께선 몹시 불편하신 모습으로 물을 퍼 나르고 계셨다. 처음 생각으로는 그냥 지나쳐 가려 했지만 할머니의 그 모습을 보니 왠지 가슴이 찡해왔다. 그래서 가방을 내려 놓고 할머니의 물양동이를 건네주고 서너 번 물을 날라 드렸다. 서너 번 물을 나르고 보니 좀 더웠다. 땀이 났다. 할머니께선 나의 이마의 땀을 닦아 주시며 고맙다고 하셨다. 조그마한 일에 할머니께서 너무 그러시니까 괜히 몸돌 바를 모를 정도였다. 집에 와서 생각하니 나의 머리속에 있던 이전의 인색하시던 할머니가 아니라 정답고 친절하신 할머니가 되었다.

그 다음날부터 난 그 할머니를 대할 때는 더 친절하고 정답게 대하였다. 할머니께선 나만 보시면 싱긋 웃으셨다. 어른들의 말씀으로는 할머니께선 아들이 있다고 하셨다. 친척도 있으시고 그런데 할머니는 왜 혼자 사실까? 요즘 사람들은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한다는데 왜 그럴까?

오늘따라 이런 생각을 하니 괜히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내가 자식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부엌일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기도 했다. 난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와 더 친해졌다.

내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이다. 매년 부모님 꽃을 2개만 준비했는데 오늘은 3개를 준비해야겠다. 할머니 것까지 말이다. 집에서 열심히 꽃송이를 만들었다. 내일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아침 해가 돋았다. 나는 제일 먼저 꽃송이를 가지고 할머니댁을 향하여 뛰었다. 그런데 할머니의 집은 이상스럽게 조용했다. 방문을 열어 보니 할머니께서 아직 누워 계셨다. 내가 온 것을 보고 기뻐

하시다가 아픈 표정을 지으셨다.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셨던 것이다.

이날 이후 할머니께선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였다. 할머니께서 쓰시던 물건들과 환경은 더욱더 초라해 졌다. 부엌도, 방도 할머니께서 손질하시던 모든 것이…….

난 할머니께서 하루 빨리 일어나시기를 마음 속으로 조용히 빌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할머니의 병은 더욱 악화됐다. 얼마 후 할머니는 사람 얼굴조차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상태까지 이르고 말았다. 나는 할머니를 위해서 걸레를 빨아 마루도 닦아 드리고 빵을 사다가 조금씩 먹여 드리기도 했다. 그리고, 또 방을 청소하며 설겅이를 해 드리기도 했다. 현리에 산다는 할머니 친척분들은 한두 번 왔다 갈뿐 더 이상의 신경을 쏟아주지 않았다. 그 친척들은 할머니 병이 더 악화되자 할머니를 모실 아주머니를 한 분 두고 할머니의 모든 행동을 대신 해 주게 했다. 한때는 할머니를 보고 있노라니 할머니는 무서운 듯이, 겁에 질린 것처럼 눈을 휘둥그레 뜨셨다. 할머니는 그런 생활을 반 년 정도 하시다가 끝내 추운 겨울 날 외로이 저 세상으로 가셨다. 난 너무나 슬펐다. 지금 생각해도 할머니는 참 불쌍하신 분이셨다. 어버이날 자식에게 꽃송이가 못 받아 달아보신 할머니, 난 이런 할머니를 보면서 그때 더욱더 부모님들께 효도해야겠다는 신념을 굳혔다. 홀로 외롭게 살다가신 할머니는 지금쯤 우리 마을을 내려다 보시며 부모님께 효도 하라고 우리 어린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지도 모른다.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그날만 부모님께 효도하지 말고 모두 어버이날처럼 여겨서 효도해야 한다. 우리 조상들의 뜻을 받들어서…….

금 상 <초등부>

할아버지의 주름살

죽천국민학교 6학년  
박 수 연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따로 살기 때문에 나는 자주 놀러간다.

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가면 할아버지께서는 반가이 맞아주시며 “우리 수연이 왔구나” 하시며 주름진 얼굴로 웃으신다.

나는 웬지 이말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왜 이렇게 주름살이 많지도 생기셨을까? 아마도 너무 농사일을 하셨고 8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럴거야.

할아버지께서는 힘든 농사일을 하실때마다 이마에 있는 주름살이 하나씩 하나씩 더 생기시는데 기운이 없는 몸을 이끌고 언제나 밭이나 논에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더 할아버지의 주름살이 더욱 깊게 느껴졌다.

나는 이다음에 커서 이 농촌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예전부터 다리가 아프시다고 하셔서 나는 매일 할아버지 다리를 밟아 드린다.

그럴때 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이구, 시원하다. 아이구 시원해” 하시며 흐뭇한

얼굴을 띄우셨다. 할아버지로 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이상하게 마음까지 기쁘다. 조금이라도 할아버지를 위해서 였다는 생각 때문일까?

어떤 때에는 할아버지의 “수연아” 하는 소리만 들리면 “또 시작이구나” 하는 불만스러운 마음이 먼저 앞서기도 하였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손너뎀 도리가 아닌것 같다고 혼자 생각해 보았다. 나도 이제 6학년이기 때문인지 선한 것과 그런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담배연기가 외로워 보였다. 마루에 앉아 논둑을 바라보시며 담배 한 대를 뽀뽀뽀 피우시는 모습이 오늘따라 처량해 보일 수가 없었다. 오늘 저녁때는 저축한 돈을 찾아 즐겨 잡수시는 막걸리를 사 드려야지.

다리도 기뻐마음으로 밟아 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려야지. 그러면 할아버지의 환한 웃음을 볼 수 있겠지.

그럼, 또 하나의 주름살은 줄어들거야.

## 88인제문화원 사업일지

사업일자	사업명	장소	참석인원	비고
88. 1. 23	88 정기총회	문화관	38명	
2. 5	청소년문화 생활강좌	〃	80명	
5.10~6.1	마을 농악기 보급	3개 마을		남북, 기린, 천도노인회
6. 8	숨다리 합창단 창단 발표회	문화관	250명	
6. 17	청소년 문화강좌	〃	200명	
6. 21	경로효친사상 선양 강연	〃	150명	
6. 24	경로효친사상 선양글짓기 대회	〃	60명	
8. 12	예절강좌	〃	150명	
8.6~ 8.12	풍물강습	〃	25명	
9.9~ 9.10	은솔씨 제 2회 연극공연 후원	〃	400명	
9. 11	88 성화봉송맞이 축제행사	부평선착장		뗏목놀이, 농악놀이
10.17~10.19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	영월군	70명	보습만들기
11.18~11.19	문화유적지 순례	도내일원	45명	
12. 23	향토 문화상 시상	문화관	50명	시상자 3명
12. 23	효자 효부상 시상	〃	50명	시상자 6명
12. 23	내고장 문화 논단	〃	50명	
12. 31	향토 문예지 발간		600부	인제문화 제 3집
12. 31	민속품 전시실 운영	문화관		
연중계속	민속생활 용구 수집	관내일원		

## 89년도 문화원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시기	장 소	목 적
지역사회 교 육	청소년 문화강좌	5월	문 화 관	문화생활 고취
	예 절 강 좌	8월	"	예절보급
	문 화 논 단	10월	"	향토문화 전개
	풍 물 강 습	8월	"	농악놀이 보급
고유민속 예술발굴	향토 민속예술 발굴	6월	관내 일원	전통예술 발굴보존
	마을 농악기 보급	5월-8월	2 개 마 을	향토농악육성 보존
경로효친 사상선양	경로효친사상선양강연	5월	문 화 관	경로사상 전개
	경로효친사상선양글짓기	6월	"	경로사상 고취
	효행상 시상	10월	"	경로사상 함양
애향운동 전 개	향토지 발간	12월	인 제 문 화	향토문화홍보, 기록보존
	향토문화상 시상	10월	문 화 관	향토문화전개
	문화유적지 순례	7월	도 내 일 원	고유문화 탐방
향토사료 수 집	민속 생활용구 수집	년중	관내 일원	홍보, 보존, 연구
	향토 전통문화 조사	"	"	뿌리찾기, 기록, 보존
지역문화 의 개발	향토 합창단 육성	"	숨다리합창단	지방예술 향상
	향토극단 육성	"	은솔외극단	"
	문학동우회 육성	"		"
	향토사진동우회 육성	"	내설악동우회	"

인제문화원임원



원장 고 명 국



부원장 오 정 진



이사 함 태 봉



이사 조 창 구



이사 정 병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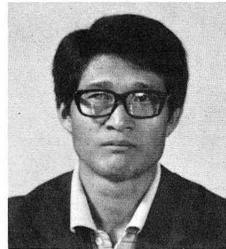
이사 엄 규 완



이사 심 상 우



이사 장 정 훈



이사 전 광 규



이사 박 주 화



감사 박 해 순



감사 이 창 락

## 편 집 후 기

- ◆ 향토의 역사와 얼을 담고 조상의 내림을 이어 받아가는 정성어린 향토지 「인제문화」가 제 3 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萬)
- ◆ 후세들에게 향토문화의 기록을 넘겨주고, 출향인에게 향토의 소식을 전해 주기에는 성숙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萬)
- ◆ 본지를 알차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귀한 옥고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 4 집의 편간에도 끊임없는 옥고를 주시옵기 바랍니다. (萬)

편집위원 : 이만철 장정섭 한구현 장복한

## 원 고 모 집

인제문화의 제 4 집 발간을 위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 장르 : 시, 수필, 제언, 시조, 향토사자료, 향토예찬, 화보 등
- 기간 : 89년 10월 30일까지
- 보내주실곳 : 인제문화원 (T. 461-6678)

## ▲ 表紙說明 ▲



### ▲ 장 수 대 ▲

이 산장은 1959년 10월 1일 당시 제 3군단장 오덕준 장군의 후의로 설악 전투의 대승을 기념하고 설악산의 개발을 위하여 세워졌다.

(인제군 북면 한계 3리 소재)

- ☞ ‘麟蹄文化’는 郡內 各 기관, 단체, 학교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麟蹄文化’는 발행 부수가 한정되어 있사와 회관이나 문고, 도서관, 자료실등에 비치해 여러분들이 돌려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麟蹄文化 第三輯

발행인:	高	明	國
편집인:	李	萬	喆
발행처:	인 제 문 화 원		
전화:	4 6 1 - 6 6 7 8		
인쇄처:	인 제 인 쇄 소		
인쇄:	1988.	12.	20
발행:	1988.	12.	30

(비 매 품)

- ◎ 本誌는 한국문화예술 진흥원과 인제군의 일부 지원금을 받아 발간된 책으로 인제군민 모두의 문화기관誌입니다.

